

The 19th Together Day

제19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레집



포용으로 넓어지고,
다양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What is Together Day?

Together Day is a national commemorative day designated to create a society where foreign residents and Korean nationals respect each other and live in harmony through diverse cultural exchanges.

세계인의 날이란?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재한외국인과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한국에서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
주면서 받은 행복,
봉사가 내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장 울

국 적 대한민국

원국적 키르기즈스탄



한국에서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 주면서 받은 행복,
봉사가 내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처음 생활을 시작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주었던 분들이 바로 외국인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도움을 기억하며 다른 외국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정을 주고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를 껴주고 응원해 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도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운 상황을 커뮤니티에 글로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제가 한국에서 적응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추천으로 저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관 여성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고 직장도 있었으며 남편과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1월에는 TBS '다다다 우리말'에서 우승을 했고, 10월에는 KBS '우리말 겨루기' 외국인 특집에도 참여했습니다. 이후 대사관 관계자의 요청으로 키르기스스탄 국립방송에 한국에서 잘 정착해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대표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처음에 한국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한국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례도 소개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여성회에서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 결국 제가 대표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주한외국인공공서비스 개선토론회 참여



2019년 재한 키르기스 교민회 서울시 축제 참여

방송 영상은 지금도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는 저를 비난하는 댓글도 있어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보고 위로가 되었다며 “한국에 언니 같은 사람이 있어 연락하고 싶어졌다”는 말을 전해주는 여성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비난의 댓글로 받은 상처는 사라지고 작은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10년 당시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었지만, 제 한국어 실력으로 서울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인천공항세관 그린캡 통번역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하지 않아 서울에서 인천까지 출퇴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결국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 주면서 받은 행복,
봉사가 내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2018년 한국이민정책학회 세미나 참여

이후 남편의 일이 안정되면서 제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더 체계적으로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에 입학하여 한국어를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2012년에는 러시아 비자지원센터에 입사하여 대사관 영사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비자 신청 접수부터 대사관 시스템 입력까지 꼼꼼하게 담당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후 가정 형편이 나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으면서 남편의 권유로 제 오랜 꿈이었던 고려대학교 입학의 꿈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2015년 대학 시절, 건축학도라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해야 했고 그것이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공모전 정보를 찾던 중 우연히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원 후 선정되어 활동가로 공식 위촉되었고, 그 인연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는 2015년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출범하였으며, 23개국 38명의 외국인 주민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회의는 외국인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서울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였습니다.

대표자회의의 주요 역할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서울시에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련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외국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전달하는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2018년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에서 F-4(재외동포) 비자의 단순노무 허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제안을 한 계기는 재한 러시아권 커뮤니티에서 외국인들의 의견 수렴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라 정책제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현장의 요구사항이었으나, 실제 제도 변화는 2025년 들어 구체화되었다는 소식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제가 한 제안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었다는 점에 외국인들의 요구사항을 실현되었음에 감사하였습니다.

2018년 당시 배경 및 제안 내용

배경: 재외동포(F-4)는 전문직, 사무직 등 취업 범위가 넓은 반면, 단순노무(건설업, 식당 등) 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불법 취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제안: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에서 국내 동포들의 현실적인 취업 구조를 고려하여, F-4 비자 소지자도 단순노무 직종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

2018년에는 대표자회의 전체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신문, 불교라디오방송 인터뷰, 건국대학교 디아스포라 연구소 특강, 한국이민정책학회 세미나 토론, 난민 관련 간담회 등에 참여하여, 이주민 민간단체 방문, 다문화센터 멘토로 활동하며 대표자회의 임원진과 외국인 대표자들 총 10명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주한 외국인 공공서비스 개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위 활동들은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원들 활동 확대를 위한 저만의 노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 주면서 받은 행복,
봉사가 내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베트남, 중국, 일본, 러시아, 네팔, 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국가의 이주민 커뮤니티 모임과 행사에도 참여하며 많은 이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 제안을 작성하는 데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자회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전체회의의 진행을 위해 공연팀을 초청하는데, 전문 공연을 섭외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대표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전통 의상을 입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회의의 진행 준비 회의에서 제안을 했고 고맙게도 위원들이 수락해 일시적이지만 아름다운 합창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여 노래를 못해도 의상 입고 같이 있어도 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저는 음치라 노래 안부른 걸로 되었지만 3-4번 연습하는데 늘 함께 하였습니다. 연습 과정도 즐거웠고, 그 덕분에 대표자들끼리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대표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 서울시장이 전체회의에 참석하셨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위원장을 맡아본 경험도 없지만 대표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은 자리라고 생각하였고 다른 것을 몰라도 열심히 활동을 하면 시장님도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게 될 수도 있으시겠다는 생각에 2018년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에 서울특별시장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은 대표자회의 위원이신 그 당시 외국인명예시장님 덕분이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제가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보다 정보를 공유하고 사람들 만나서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 어디 연락하거나 관련 기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에 또는 다문화센터의 민간단체 등 문의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필요시 같이 동행하는 역할뿐일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소통과 대표자로 활동한 분들과의 정보공유가 있어서 가능하였습니다.



2018년 서울타운미팅 참석

제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활동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자원봉사 활동과 서울청 이민자 네트워크 활동입니다.

2018년 대표자회의 전체회의에서 출입국 관계자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2019년 4월부터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의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부터는 서울청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으로 활동하며 출입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비자 연장이나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언젠가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는데, 그 꿈을 실현하게 된 곳이 바로 서울출입국이었습니다.

이민자 네트워크는 이주민들이 당당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곳이기도 합니다. 그 덕분에 출입국에 대한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가 아니라, 이민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 주면서 받은 행복,
봉사가 내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서울청 이민자 네트워크 활동 1



서울청 이민자 네트워크 활동 2

또한 제가 출입국에서 봉사를 하고 싶은 이유는 국적 취득 전, 영주권을 받기 전에 결혼비자 연장을 위해 출입국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긴장되고, 이유 없이 불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방문 예약 시스템이 없어 직접 가서 번호표를 뽑고,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른 채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창구에 갔지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안내를 받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급히 작성하여 다시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본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긴장한 탓에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신청서 양식을 찾지 못해 헤매거나, 인지를 어디에서 구입해야 하는지도 몰라 당황했던 적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다시 창구에 문의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낯선 환경 속에서 작은 일 하나도 크게 느껴졌던 외국인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 출입국에서 봉사복을 착용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먼저 다가와 도움을 요청하시고, 저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약번호 확인부터 통합신청서 작성, 인지 구입 방법까지 미리 안내해 드리며, 방문하시는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대기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끔은 간단한 안내를 드렸을 뿐인데도 돌아가시며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오르며, 누군가의 불안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작은 도움일 수 있지만, 그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2026년 이민자네트워크 제4기 회장을 맡게 되어 지금까지 활동을 해온 회장님들의 활동을 이어 네트워크 회원분들과 소통하고 한국의 봉사문화를 함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민자네트워크 활동 중 많은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26년 다문화 아이들 있는 복지시설 방문, 2025년 11월 김장 체험 김치 나눔 행사가 행복하고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국에서 살 때는 몰랐지만, 한국에서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 도움과 위로, 정과 지지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더 나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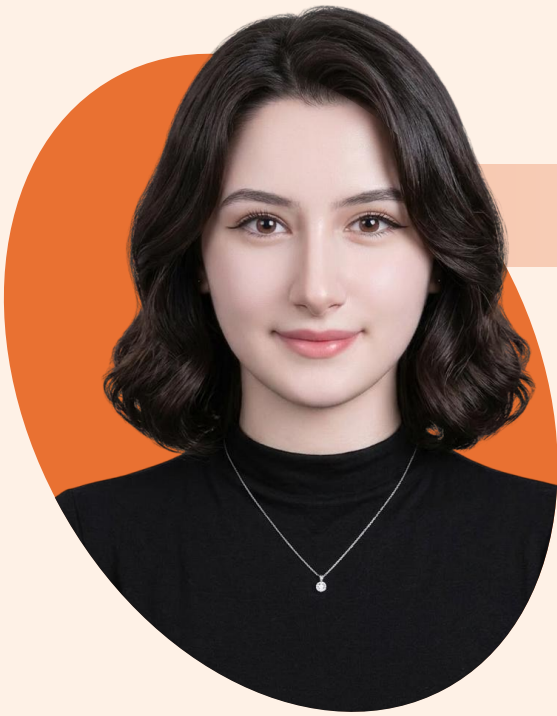
저는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들의 응원으로 오늘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그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고 저한테 도움을 주신분들에게 고마움을 봉사에 담아 열심히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The 19th Together Day

제19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레집



한국에서 빛난 나의 삶

— **채 빛 나**
첼릭 야아무르 누르

— 국 적 튀르키예



저는 11살 때 TV에서 나온 한국 드라마 「꽃보다 남자」를 보며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많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노래를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한국에 살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제 인생의 가장 큰 꿈이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어와 SAT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보았던 한국 드라마에서 ‘빛나’라는 이름을 듣고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그 의미가 제 이름과 같아 한국에 살게 된다면 이 이름을 사용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2022년에 한국정부초청장학금을 받아 부산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빛나’라는 이름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을 간접적으로 경험해왔기 때문에 한국에 오자마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나는 10년 동안 이 삶을 꿈꿔왔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한국이 아직 너무 낯설어서 그랬던 것이었고,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옆에 앉은 한국인 학생들에게 말을 걸며 친구를 사귀려고 했지만,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참 후에 알게 되었고 오랜 시간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외국인과 친구가 되기 어렵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고, 계속 혼자 다니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흰밥조차 간이 없어 먹기 힘들 정도였고, 기숙사, 학교, 패스트푸드 가게만 오가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 수업에서 우연히 한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그 친구를 통해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친구들이 저에게 성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빛나’라는 이름과 어울리면서 제 원래 성과 발음이 비슷한 ‘채’를 성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친구들 덕분에 학생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많은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꿈꿔왔던 한국에서의 일상에 점점 가까워졌고, 한국 친구들과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또 다른 어려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로 인해 힘들었던 부분들을 튀르키예 문화와 비교하게 되면서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고, 튀르키예에서 공부했다면 덜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로 했고,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겪어 보자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외국인 멘토로 활동하며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외국인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23년 1학기에는 부산대학교 요트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새로운 취미가 생기면서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지내며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

광안리에서 처음 요트를 탔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신기하고 평화로운 경험이었고, 그 계기로 요트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포항에서 2주간 전국 대학교 해양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요트를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과정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때 동아리 집행부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회장을 맡고 싶다고 말하게 되었으며, 이후 2학기부터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요트 동아리 회장으로서의 1년은 대학 생활 중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회장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요트 동아리는 안전과 장비 관리가 중요한 동아리이기 때문에 책임이 컸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서류 작업을 진행하고 요트 경기장과의 연계 및 소통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요트 활동을 위해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울면서 갔던 기억도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자 튀르키예 사람으로서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제 역할을 잘 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생 요트 대회에서 개인 메달을 받았고, 동아리 최초로 트로피를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회장 기간이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고진감래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20 회 부산 불꽃 축제

또한 2022년 말 부산대학교 정부초청장학생 동문회가 설립되면서 운영진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2024년에는 부회장을 맡았으며 2025년에는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대학 생활을 좀 더 행복하고 활발하게 만들고 싶다는 계기로 회장을 맡게 되었고, 동문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 구조 정비, 연계 구축, 회칙 제정 등을 직접 만들어 나갔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같은 튀르키예 사람을 찾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고, 몇 명이 있더라도 스스로 연결되기 어려워 같은 나라 사람으로부터 위로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계기가 되어 2025년에 부산대학교 튀르키예 동문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서로 알지 못했던 튀르키예 학생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2024년 포항 전국 대학 요트대회 개인전 메달 및 단체전 3위 수상

학교 안에서는 멘토, 학생회, 동아리 회장, 동문회 회장 등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며 더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산 글로벌도시재단 외국인주민 커넥터로 활동하게 되었고,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UN 관련 행사인 'Turn Toward Busan: 유학생활동을 바꾸는 시간'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진행하며 외국인 유학생들과 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능력시험 6급을 취득했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친구들을 잃을까 봐 웃을 때 웃고 반응할 때 반응하며 이해하는 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듣고 대화에 참여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생활 한국어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점점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2023년에 국제학생회(ISF)에서 선생님을 만나 매주 1:1로 한국어 공부를 이어갔고, 교양으로 한자 수업까지 들으며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국어 책을 읽으며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그 결과 2024년 전국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외교부장관상을 받게 되었고, 저에게는 오랜 노력의 결실이었기에 무대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2년간 정보컴퓨터공학과 근로를 수행하였고, 2025년 여름에는 한국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해 여름에는 외교부 주최로 진행되는 MIKTA 청년대화 프로그램에 합격하여, 인턴 기간 중 휴가를 내고 튀르키예즈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뜻깊은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적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이제는 꿈꾸어 왔던 한국에서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한국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곳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해 더 많은 꿈을 이루고, 제 이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2025년 MIKTA 청년대화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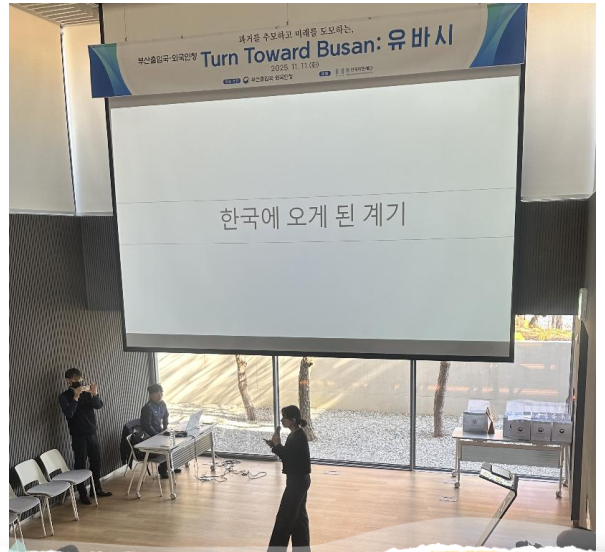
2024년 ISF 전국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대상 및 외교부장관상 수상



부산대학교 튀르키예 동문회
'튀르키예 문화의 날' 개최



2025년 제1기 외국인주민 커넥터 위촉식 참석



2025년 'Turn Toward Busan
유학생을 바꾸는 시간' 강연 진행



The 19th Together Day

제19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레집



노래로 이어진 마음,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 재정착 난민 아동 합창단 '하울림' 이야기 -

— 이 병 철

— 국 적 대한민국



대한민국에는 전쟁과 박해를 피해 새로운 삶을 찾아온 재정착 난민들이 살고 있다. 그 중에는 부모의 선택으로 낯선 나라에 오게 된 아이들도 있다. 언어도, 문화도, 친구도 낯선 환경 속에서 이 아이들이 겪는 혼란과 두려움은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결코 작지 않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작은 노래 모임으로 시작된 한 합창단이 있다.

바로 미얀마 카렌족으로 구성된 재정착 난민 아동과 청소년 14~16명으로 구성된 “하울림 합창단”이다.



하울림이라는 이름에는 재정착 난민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

하: 하나의 꿈을 품고 먼 길을 넘어 왔지만

울: 울림이 되는 노래로 서로의 마음을 잇고

림: 깊은 숲처럼 넓은 희망 속에서 함께
살아갈 내일을 노래한다

이 이름처럼 하울림 합창단은 단순한 음악 활동을 넘어, 노래로 마음을 연결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통합을 이루어 가는 이야기로 성장해 왔다.

낯선 나라에서 시작된 작은 노래

하울림 합창단의 시작은 2017년 7월이었다. 당시 재정착 난민 아동들의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해 한글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한국어를 거의 알지 못했고 학교에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속에서 아이들의 표정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늘 묻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노래를 통해 정서적 지원도 시키고 한글을 배우면 어떨까?”

이 생각에서 노래 교육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제대로 된 합창단이라 부르기도 어려웠다. 전문 지휘자도, 반주자도 없었다. 악보를 보는 것도 서툴렀고 발음도 어색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노래를 통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언어보다 먼저 노래가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모임은 2019년 5월 부평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가족행사에서 처음으로 작은 무대에 서게 되었다. 아이들이 부른 노래는 ‘고향의 봄’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서툰 장면도 많았다. 악보를 거꾸로 들고 있는 아이도 있었고, 노래를 부르다 졸던 아이도 있었다. 하지만 그 무대는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었다.

보이지 않는 갈등과 적응의 시간

아이들은 대부분 미얀마 카렌족 출신으로, 난민촌에서 생활하다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난민촌의 환경은 마치 1960년대 한국 농촌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비행기를 처음 타고, 공항을 처음 보고, 전혀 다른 도시 환경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아이들에게 큰 문화 충격이었다. 특히 학교생활은 더욱 어려웠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학교에 편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어떤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나이이다보니 준비되지 않은 채 한국 고등학교에 들어가기도 했고 다른 친구들도 그냥 나이에 맞추어 학교에 입학 되었다.

친구들과 대화도 쉽지 않았고 수업을 이해하기도 보다는 교실 안에서 모든 게 두려움 그 자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무기력해 보이기도 했다. 어느 날 시교육청 장학사께서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이 너무 무기력해서 걱정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합창 연습실이나 어울림이끌림 교육공간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매우 활발하고 밝은 모습을 보였다. 그때 깨달았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무대에 서는 만큼 성장합니다”

그 무렵 한 봉사자로 참여하던 은퇴 교장선생님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셨다. “아이들은 무대에 서는 만큼 성장합니다.” 그 한마디는 하울림 합창단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경험과 무대를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로 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여성합창단 지휘자였던 김한철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선생님은 전문 지휘자와 반주자를 소개해 주었다. 지휘자를 추천하며 선생님은 세 가지 기준을 강조했다.

- 첫째, 아이들을 엄마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
- 둘째, 재정착 난민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
- 셋째, 음악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

이 만남은 하울림 합창단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아이들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던 수준에서 벗어나 화음을 만들기 시작했고, 무대에서 보여 주는 반듯한 자세와 율동도 자연스럽게 익혀 갔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노래를 통해 자신감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순간

2018년 11월에는 뜻깊은 일이 있었다.엘림아트센터의 후원으로 정식 공연장에서 하울림 합창단 창단 발표회를 열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이들은 카렌족 전통 의상을 입고 ‘고향의 봄’을 불렀다. 공연장 뒤편 영상에는 아이들이 살았던 난민촌의 모습이 함께 비춰졌다. 공연이 끝난 뒤 관객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마음이 짝합니다.” “아이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평에 난민이 살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다. 하울림 합창단의 노래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이후 하울림 합창단은 계속 성장했다.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이주민 합창대회에서 입상했고,2025년 어린이 평화 노래 부르기 대회에서는 대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하울림 합창단에게 상은 목표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문화는 달라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노래로 전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는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나타났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부모들도 공연이 있을 때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이동과 준비를 돕기 시작했다. 난민 가족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과정이었다. 또한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지역사회 봉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재난지역 봉사, 연탄 나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받는 사람에서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다.



25년 7월 어린이 평화 노래부르기 대회 『대상』 수상

노래로 이어지는 사회통합

2026년에는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부평아트센터 (6월18일)에서 하울림 합창단과 어울스 합창단이 함께 하는 기획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공연은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문화와 나눔을 연결하는 사회통합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처음 도움을 받으며 하울림 합창단의 연습은 지하 연습실에서 시작되었다.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노래가 이제는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공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시작은 미약했다. 하지만 지금 하울림 합창단은 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의 이야기가 되었다.



25년 12월 정기 공연

언젠가 이 아이들이 국제무대, 특히 UN과 같은 세계 무대에서 노래하며 재정착 난민의 희망적인 정착 사례를 세상에 들려주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노래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갈등을 이해로 바꾸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하울림 합창단의 이야기는 바로 그 사회통합의 작은 울림이다.



25년 12월 정기 공연

함께 살아가는 내일을 노래하다

하울림 합창단의 이름처럼

하: 하나의 꿈을 품고 먼 길을 넘어 왔지만
울: 울림이 되는 노래로 서로의 마음을 잇고
림: 깊은 희망 속에서 함께 살아갈
내일을 노래한다

이 노래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나가면서

처음에는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작은 갈등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래라는 공통의 언어는 아이들에게 변화의 용기를 주었고 서로의 마음을 이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울림 합창단은 문화와 국적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화합의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도움을 받던 존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봉사 와 나눔에 참여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울림의 노래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문화는 달라도 우리는 하나이며, 희망은 함께 노래할 때 더 크게 울린다.”라고.....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편안한 안식처

— 인천사할린 동포복지회관



안녕하세요.여러분, 혹시 사할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섬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로 약 3시간이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멀게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가까운 곳이지요.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식민지였던 한국의 젊은 청년들을 강제로 사할린으로 끌고 갔습니다. 일제강점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국으로 이주해야 했던 사할린동포들은 해방이 되었음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무국적자 혹은 러시아 국적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할린에서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니다.남자들은 벌목, 건설, 탄광 등 고된 노동을 감당해야 했고, 여자들은 집안일과 품팔이, 감자농사, 장미농사 등을 지어 시장에 내다 파는 등 책임지며 가족의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해방 이후,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현실은 그럴수가 없었습니다. 사할린은 섬이었기에 배가 있어야만 한국으로 갈 수 있었고, 가난한 동포들에게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좌절을 느끼게 했습니다. 복지회관에 거주 중인 한 어르신의 이야기는 그 시절의 비극을 더욱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일본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배를 마련했다며 사람들을 태웠지만, 그 배는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폭파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은 개인 사정으로 배를 타지 못했는데, “만약 그 배를 탔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할린동포들에게 고국은 가까우면서도 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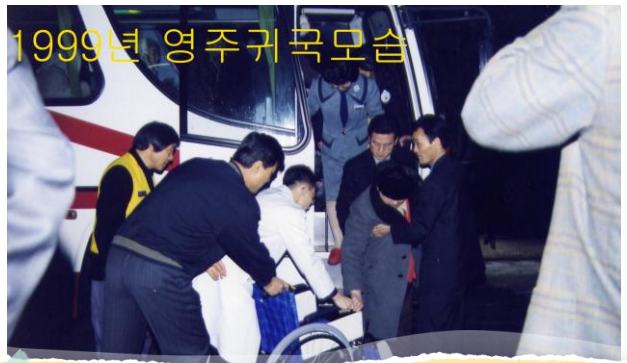
해방이후 사할린은 소련의 재점유로 체제가 바뀌었고, 한국과의 교류는 단절되었습니다. 동포들은 멀리서나마 고국의 소식을 접하며 살아갔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에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6·25전쟁과 보릿고개를 겪으며 여유가 없었던 시기를 지나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러시아와 수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할린동포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영주귀국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992년부터 이어진 이 사업으로 많은 사할린동포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아기였던 아이들은 어느덧 노인이 되어, 청춘을 사할린에 묻었던 세대가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고국에 돌아왔다는 기쁨도 잠시,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러시아 문화 속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다시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1999년 회관 첫 입소 모습 1



1999년 회관 첫 입소 모습 2

바로 이 지점에서, 저희 인천 사할린 동포복지회관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은 1999년 3월 2일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어르신들 중 건강상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모시는 요양시설로 개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보호사들이 함께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시며, 고국에서의 삶이 낯설지 않도록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건강체조, 인지에방프로그램, 요리·원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와 함께 물리치료, 병원치료, 자재진료, 촉탁의 진료까지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을 세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온 동포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보내는 하루하루는 그 어떤 서비스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나들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경험하고, 고국의 안정된 모습을 직접 느끼며, 어르신들은 점차 이곳을 '머무는 곳'이 아닌 '살아가는 곳'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박람회를 통해 사할린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힘쓰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체조 1



건강체조 2



노래잔치



나들이

먼 길을 돌아 다시 찾은 고국.
그 고국에서의 삶이 더 이상 낯설지 않도록,
그리고 남은 시간이 외롭지 않고 따뜻할 수 있도록,

인천 사할린 동포 복지회관은 오늘도 어르신들의 곁에서 행복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변함없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날 행사



요리교실



러시아 시장 1



러시아 시장 2

먼 길을 돌아 다시 찾은 고국.
그 고국에서의 삶이 더 이상 낯설지 않도록,
그리고 남은 시간이 외롭지 않고 따뜻할 수 있도록,

인천 사할린 동포 복지회관은 오늘도 어르신들의 곁에서 행복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변함없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복지박람회 참가



물리 치료



The 19th Together Day

제19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레집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기까지

— 파질리피에만

— 국 적 대한민국

— 원국적 아프가니스탄



어려운 환경속에서 잃지 않았던 배움이라는 희망
제 이름은 피에만 파질리입니다. 저는 안정된 조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안전을 찾기 위해 파키스탄으로 향했고, 저는 그곳에서 난민으로 성장했습니다. 약 20년 가까운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며 난민들이 흔히 겪는 여러 제약을 경험하며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교육이 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으로 향한 새로운 기회

그 믿음은 결국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2016년 저는 글로벌 코리아 장학금(GKS)을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교육 수준과 기술 혁신으로 잘 알려진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차가운 겨울 날씨와 함께 처음 들어보는 언어 속에서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처럼 저 역시 처음에는 한국어와 일상생활, 그리고 완전히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학업 여정을 이어가기 전, 초기 유학생 시절들 1



학업 여정을 이어가기 전, 초기 유학생 시절들 2

학문적 성장과 소중한 인연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은 제 삶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엔지니어를 꿈꾸었던 저는 끊임없는 노력과 배움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KAIST에서 박사 과정까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학문적 여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제2의 아버지와 같은 은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함께 연구하며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은 이제 제 인생의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만남들은 저를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느낀 가치

한국에서 생활하며 제가 깊이 느낀 것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라는 점이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낯선 외국인이었지만, 배우고 도전하려는 모습을 주변에서 따뜻하게 응원해 주었습니다. 교수님들과 동료들,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저는 연구자로서뿐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도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귀화를 꿈꾸게 된 순간

그 당시까지 아프가니스탄 국적이었던 저는 한 가지 경험을 통해 귀화에 대한 간절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2년 KAIST에서 공부하던 중 캐나다에서 열리는 학회에 제 논문이 채택되어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국적이라는 이유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저는 그 학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언젠가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세계 무대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한국 귀화라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학문적 여정 속 연구발표와
KAIST 졸업의 순간 2



한국에서의 학문적 여정 속 연구발표와
KAIST 졸업의 순간 1

한국 시민이 되기까지

그리고 2026년, 한국에 처음 온 지 10년이 되는 해에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국적 취득 소식을 들었을 때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나라에 처음 도착했던 순간부터 언어를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며 하나씩 쌓아 온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던 이 나라에 더욱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현재와 미래

현재 저는 한국에서 삼성SDI의 엔지니어로 일하며 첨단 배터리 기술과 제조 공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매우 큰 책임이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는 제 일을 통해 한국이 연구와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해 온 기술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은 단순히 제가 공부하고 경력을 쌓은 나라가 아니라 제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한때 미래의 방향조차 명확하지 않은 난민으로 살아가던 저에게 교육과 노력, 그리고 혁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나의 집이 된 나라,
한국에서의 삶과 일상의 순간들 1



나의 집이 된 나라,
한국에서의 삶과 일상의 순간들 2

감사와 앞으로의 다짐

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법적 신분의 변화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노력과 감사, 그리고 소속감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저는 한국이 제게 주었던 기회와 그 과정에서 저를 도와준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일과 연구, 그리고 뛰어난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사회에 계속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 이야기가 특히 제한된 기회 속에서 삶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심과 교육이 있다면 의미 있는 변화는 반드시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미래를 만들어 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둠을 넘어 빛으로

— 안 데 샤
RAHMAT ANDESHA

— 국 적 아프가니스탄



낮선 땅에서의 첫걸음

열여섯, 열일곱 살을 앞두고 저는 한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던 2021년, 저는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의 도움으로 이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탈레반이 들어오면서 여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고, 밖을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 한국행은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 도착하자 또 다른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간판 하나, 안내문 하나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무료급식 봉사

버스 안에서 생긴 일

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항상 휴대전화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하면 못 알아들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자신감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려고 했을 때의 일입니다. 학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기사님이 갑자기 저를 멈춰 세우며 말했습니다. "학생 카드인데, 당신은 학생이 아니잖아요." 저는 당황하면서도 "저는 학생이에요!"라고 계속 말했지만, 기사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한국 아주머니께서 "봐요, 학생 맞아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기사님은 고집을 피웠고, 결국 학생증을 직접 보여준 뒤에야 버스에 탈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미숙해서 그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겪고 난 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순간이 한국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굳게 결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히잡을 쓴 소녀

저는 무슬림으로서 히잡을 씁니다. 한국에서 히잡은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모습이었고, 특히 여름이 되면 "이 더운 날 씨에 왜 써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점차 제 신앙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히잡에 대한 시선까지 -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웃으려 노력했지만 밤이 되면 잠들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진로는 어떻게 될까 불안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나라에서 교육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수 많은 소녀들을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

다행히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항상 한국어 대화를 도와주었고, 수업 중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가장 친한 친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 정말 예쁘다"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수업이 끝난 뒤에도 저에게 한국어를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보충 수업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메리디오 센터와 함께한 성장

'메리디오' 센터의 도움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매주 한 번씩 수학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준비를 함께 했고, 방학에는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주 2~3회 한국어 수업이 있었고, 이러한 도움들이 쌓여 TOPIK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권도 없이 준비한 대학 입시

대학교 지원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권이 없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서류를 준비해야 했고,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공부였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침내 여러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동안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2학년 학생으로, 매일 새로운 지식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 그리고 친한 친구와 함께

어둠의 끝에 찾아온 빛

돌아보면, 저는 참 많은 어둠을 지나왔습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으로서 느꼈던 두려움과 억압, 자유롭게 공부할 수 없었던 답답함. 한국에 와서는 언어도 문화도 전혀 다른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불안감. '이 나라에서 내가 과연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은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그 어둠에 조금씩 빛이 들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진로에 대한 걱정이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바뀌었고, 막막했던 미래가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주변의 선생님들, 친구들, 센터의 도움, 그리고 저를 믿어준 교수님 그 모든 손길이 모여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앞으로 기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국적과 배경에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저처럼 낯선 곳에서 두려움속에 서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빛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고, 지금도 그 빛 속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교정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 이 금 항
LI JINHANG

— 국 적 중 국



2018년 8월 31일, 나는 E-7 비자를 받고 큰 기대와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2018년 8월 31일, 나는 E-7 비자를 받고 큰 기대와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낯선 땅 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어도 완벽하지 않았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반드시 이곳에서 잘 살아보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처음 정착한 곳은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독특한 자연환경은 나에게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풍경과는 달리 현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온 직후 나는 제주도의 한 고기 전문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손님과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동료들과 소통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당황했던 적도 있었고, 일을 하면서 실수로 인해 속상했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틈틈이 한국어를 공부했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메모해 집에 가서 다시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고기집에서 일하면서 나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내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나서 친절하게 말을 천천히 해주었고, 가끔은 “한국어 잘하네요, 열심히 하세요”라고 격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작은 말 한마디가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생활을 이어가던 중, 나는 한국어능력시험인 토픽(TOPIK)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험을 준비할 때는 자신이 없었지만, 꾸준히 공부한 끝에 결국 토픽 4급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나에게 매우 큰 자신감을 안겨주었고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토픽 4급을 취득한 후 나는 더 큰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에서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제주관광대학교 어학당에 입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학비를 생각하면 걱정도 많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했습니다.



제주출입국 자원봉사자들과 빵 만들기



제주출입국 자원봉사자들과 봉사하는 모습

어학당에 입학한 이후 나는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어 공부에 투자했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도서관에 남아 복습을 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갔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약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한 결과, 나는 결국 토픽 최고 등급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그 결과로 200만 원이 넘는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기쁨과 뿌듯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장학금 덕분에 나는 제주관광대학교 본과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본과에 입학한 이후의 생활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학생으로서 학업을 따라가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강의 내용은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교수님께 질문했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생활을 위해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생활은 매우 바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스스로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중순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급 과정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법과 제도 등을 배우면서 나는 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점점 더 큰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주권 시험과 귀화 시험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생활 4년 동안 나는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때로는 공부와 일이 동시에 몰려와 매우 힘들기도 했지만, 그 모든 시간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나는 2024년 연말에 대학 본과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이라는 결과를 얻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낸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졸업 후 나는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 제주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문의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연구하는 과정은 나에게 또 다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관광대학교 수료식

본과 마지막 겨울방학 동안에는 우연한 기회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그 경험은 나에게 예상보다 훨씬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찾아옵니다. 언어가 서툴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고, 절차를 몰라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서류 작성을 도와주며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막막함과 어려움을 떠올리며,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사람 돕는 일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가게」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에게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받은 사랑을 나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면 나도 더 보람차고 뭔가 뿌듯한 기분이 자랍니다. 이러한 기분은 낯선 외국에서 외로움이 자라다가도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다보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도 더욱 커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장소였지만, 지금의 나에게 한국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공부했고, 일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며, 수많은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목표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보낸 시간과 경험은 이미 나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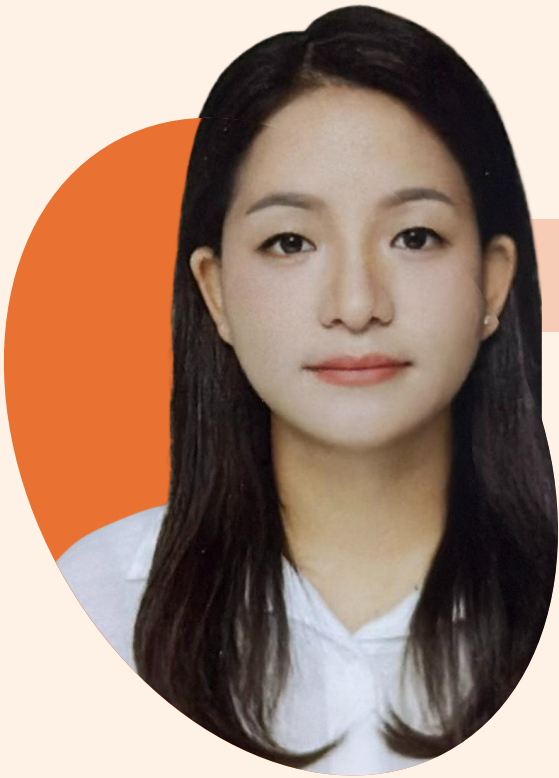
돌이켜보면 2018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나는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노력하고 도전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잊지 않고, 더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대한민국의 정식 국민이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이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나를 성장하게 해 준 이 나라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곳 대한민국에서 꿈을 꾸고 이루어 내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자원봉사중



낮선 땅에서 피어난 내 꿈

— 이 채 린

— 국 적 대한민국

— 원국적 네 팔



저는 히말라야 산이 있는 네팔에서 태어났습니다. 맑은 하늘과 높은 산 그리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자랐습니다. 저 역시 그런 환경 속에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보내며 대학생이 되어 미래를 꿈꾸던 그 시절, 저는 제 삶이 그렇게 크게 바뀔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제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팔에 큰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흔들림 속에서 집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눈앞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저는 가족을 지키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무력함과 슬픔, 두려움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한국에 살고 있던 큰 언니가 떠올랐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음식도, 달랐고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의 삶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고, 문화 차이로 내가 실수할까 봐 늘 긴장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장손의 만며느리로 살아가는 일은 저에게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명절과 제사 문화는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은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속상한 마음에 혼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와서 “미안해 당신이 한국에서 힘들지 않도록 내가 옆에서 도와 줄게” 그 한마디로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한국어를 꼭 배우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잠든 밤이면 책을 펼쳐 공부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교재를 다운받아 발음을 따라 하며 연습했고, 다문화센터 가서도 공부했고, 한국어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육아와 공부를 함께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키우며 병원과 어린이집을 다닐 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 접수 할 때나 의사의 설명을 들을 때마다 긴장 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고, 말이 막히면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시아버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병원도 같이 가 주시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라. 넌 할 수 있다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이들도 돌봐주시며 저에게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사랑 덕분에 저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특히 힘들었던 점은 대부분의 행정 절차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신청, 병원 예약 각종 서류 접수를 인터넷으로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방법을 몰라서 남편이 퇴근 할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단어를 하나씩 찾아보고, 컴퓨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 번 실패하면서도 다시 견디고 버티면서 도전했습니다. 또한 제주는 언어 때문에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손님이 “맨드롱”(제주 사투리)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손님이 “왜 없어요. 맨드롱은 미지근한 물이에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 음식도 정성껏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된장국 하나 끓이는 것도 어려웠지만, 인터넷에서 요리 방법을 찾아보며 여러번 요리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두 아이가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참 기특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저는 두 아이의 엄마로, 한 가정의 아내로, 그리고 스스로 성장해 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배우는 중 이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과 역경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새로운 책임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으로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의 한 국민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 확인 및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예약을 도와드리며, 그 외 비자 서류 작성이나,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어려움이 있는 네팔인들을 위하여 언어 통역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끼며 봉사의 기쁨을 배우고 있습니다.



7년 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네팔어 통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네팔 근로자들이 많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면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해 많이 힘들어 합니다. 문화도 다르고, 일하는 환경도 달라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언어가 통하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공감 합니다. 그래서 통역 신청하는 현장이 있으면 직접 방문 통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어려운 점이나,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대신 전달해 드리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안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주출입국 자원봉사 1



제주출입국 자원봉사 2

뿐만 아니라 다문화 소방대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을 받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고, 위급상황이 생기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한국에서 항상 도움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손을 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제 삶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받은 도움을 나의 재능 기부를 통해 대한민국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서 힘들어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저의 모습을 통해 용기를 전달해주는 모범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서 힘들어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저의 모습을 통해 용기를 전달해주는 모범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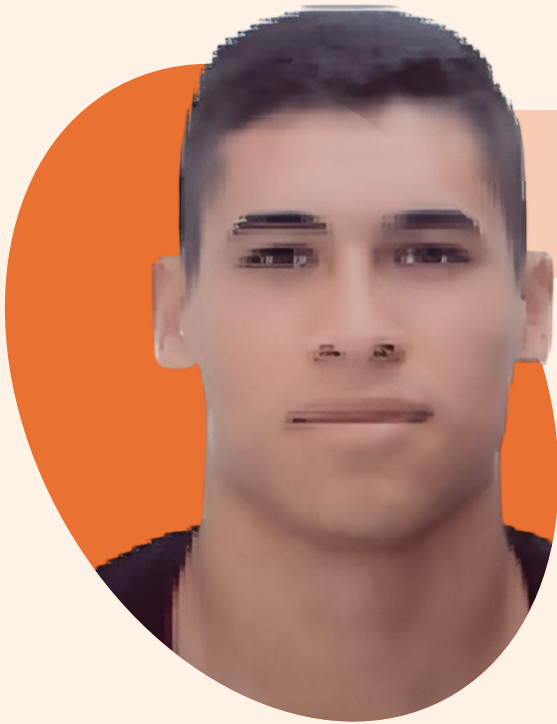
다문화 의용소방단 임용



제주출입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다문화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좌절을 딛고 한국에서 다시 뚝
브라질 청년

— RIBEIRO VICTOR

— 국 적 브라질



<처음 한국을 선택한 이유>

저는 브라질에서 태어나 축구공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꿈은 단 하나, 프로 무대에서 뛰는 것이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걱정도 많았습니다. 한국이 휴전 국가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구들도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한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거리는 안전했고,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훈련장은 체계적이었고, 선수들은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입단한 창원 FC에서의 생활

브라질에서는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운동장 위로 하얀 눈이 내리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차갑지만 아름다운 그 풍경 속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도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6개월 만의 방출, 그리고 무너진 시간>

저는 창원 FC에 입단하며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 훈련에 최선을 다했고, 팀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입단 6개월 만에 방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타국에서 혼자 버티던 세계 그 소식은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브라질로 돌아가야 하나,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자신감도, 방향도 잃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준 곳이 매니지먼트 회사 Express Global이었습니다. 최원민 대표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지금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 시간을 잘 버티면 더 좋은 기회가 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은 쉬는 동안 제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한국 문화 체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다양한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저는 축구 외에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입단한 창원 FC에서의 생활 2

<다시 얻은 기회, 그리고 경주로의 선택>

이후 저는 양평 FC에서 다시 운동장에 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매 순간을 마지막 기회처럼 뛰었습니다. 그라운드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주 FC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감독님의 말이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는다. 여기서 당신의 장점을 마음껏 보여달라.”

저는 그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저를 더 신뢰해주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도자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주로 이적했고, 지금도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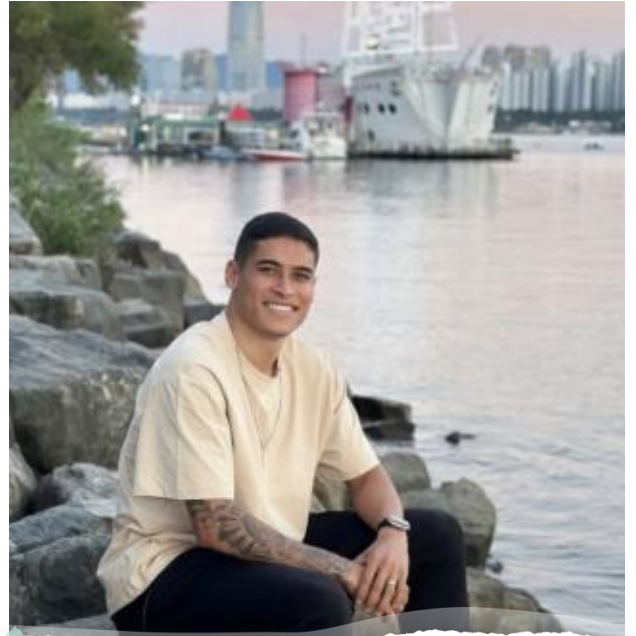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선택>

한국 생활이 길어지면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오랫동안 만나던 여자친구를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한 것입니다.

혼자서 버티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제 선택을 응원해주었고,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로 오는 용기를 내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결혼했고, 지금은 8개월 된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며 웃어주는 순간마다 저는 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브라질에서 축구를 하던 청년이,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한국은 제 꿈의 무대이자, 제 가족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 곳입니다.



방출 후 서울에서 대표님과 힘든 시기를 극복하던 때 1



방출 후 서울에서 대표님과 힘든 시기를 극복하던 때 2



방출 후 서울에서 대표님과 힘든 시기를 극복하던 때 3

<경주한수원 U-12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요즘 제가 가장 보람찬 순간은 경주한수원 U-12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주는 시간입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 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며 “브라질에서 왔어요?”, “네이마르 알아요?” 하고 묻던 순수한 아이들이 여전히 기억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기술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드리블과 패스, 슈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말해 줍니다. 팀원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강한 것이라고 늘 알려줍니다.

처음에 자신감이 부족했던 아이도, 몇 달 동안 함께 훈련을 하면서 점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골을 넣고 저를 보고 환하게 웃는 순간에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아이들도 누군가의 응원과 믿음이 있으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어요. 제가 6개월 만에 방출되었던 경험은 이제 상처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믿음에 보답하는 선수로>

돌이켜보면, 방출은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를 믿어준 사람들, 기회를 준 구단, 그리고 이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제 가족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버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믿어주었기에 저는 다시 운동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외국인 선수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믿어준 마음에 보답하는 선수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경기하고,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전하며, 한국에서 받은 도움을 저만의 방식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기회를 얻은 양평FC와 경주 FC에서의 생활 1



경주한수원 U-12 아이들



다시 기회를 얻은 양평FC와 경주 FC에서의 생활 2



경기장 위의 나를 믿어주는 동료들과 함께

저는 오늘도
한국의 운동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좌절을 딛고,
다시 시작한 제 두 번째 인생을 위해



한국에 정착 후 태어난 아이와 함께 촬영한 가족사진



The 19th Together Day

제19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레집



낮선 나라에서 배운 연결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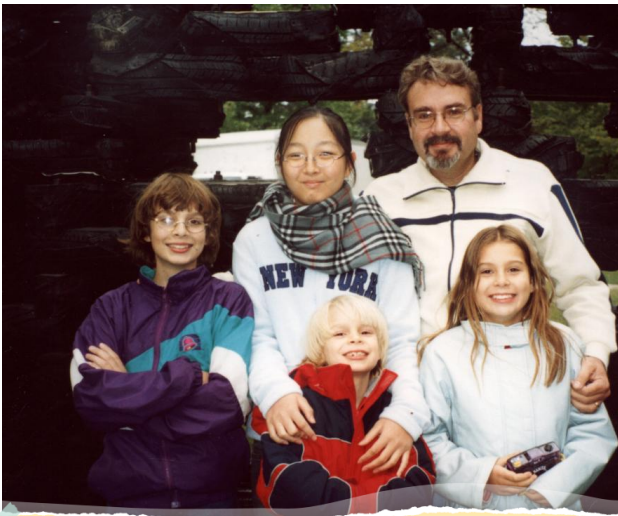
— KINDER MOLLY

— 국 적 미 국



제가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린 시절,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을 집으로 맞이하여 함께 생활했을 때입니다.

낮선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식사를 하고, 학교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는 모습은 어린 저에게 매우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어 보기도 하고,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흥미로운 경험 정도로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의 짧았던 만남이 훗날 제가 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인연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시절 한국인 교환학생과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국제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교류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새로운 직장을 찾던 과정에서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관심이 있었던 나라에서, 제가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아온 국제교육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낮선 환경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언어도 익숙하지 않았고, 한국에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만난 동료들과 학생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저는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니라 제가 살아가고 있는 또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에서 학생 활동과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처음에는 어색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함께 어울리며 대화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학생들과 함께한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

제가 기획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할로윈 행사에서는 학생 라운지를 '유령의 집'으로 꾸며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한 미국식 프롬 파티를 열어 학생들이 음악과 춤을 즐기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국제학생회가 주관한 포트럭 행사입니다. 포트럭 행사는 여러 대학에서 온 학생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의미 있는 음식을 준비해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학생들은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그 음식이 어떤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대화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생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먹던 음식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생은 자신의 나라에서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을 준비해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는 모습은 문화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함께한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2

저는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역사와 전통, 그리고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했을 때, 저와 학생들은 한옥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끼고, 전통 음식을 맛보며, 골목골목을 걸어 다니는 시간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책이나 강의로는 느낄 수 없었던 한국을 직접 느끼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한국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문화를 다시 바라보고 설명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학생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Day of Service'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함께 지역 해변을 찾아 하루 동안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협력하며 공동의 가치를 실천하는 경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학생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자연을 보호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활동을 하며 저는 학생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내려놓고 점차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학생들도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연결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때 저의 직업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 또한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한 학생은 대학에 막 입학한 신입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매우 수줍음이 많았고, 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싶지만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이 작은 활동부터 시작해 볼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그 학생은 이후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제 사무실에서 학생 근로자로 일하게 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키워 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늘 지지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학생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대학 전체 학생회를 대표하는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수줍어하던 신입생이 대학 공동체를 대표하는 리더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졸업한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연락을 주거나 자신의 근황을 전해 줄 때 저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한 학생은 학기가 끝난 뒤 이메일을 보내 “힘들었던 시기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다려 주어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제가 만들어 주었던 분위기가 낯선 환경 속에서도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역 해변 봉사활동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일하고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저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며, 저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났을 때 그것이 단순한 차이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 넓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 서로 협력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의 역할이 작을지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학생들과 함께한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3

한국 사회에서의 제 역할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다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그들을 연결해 주는 작은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역할이 학생들에게는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사회에도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문화가 확산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교육과 문화 교류를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국경을 넘어 사람을 잇는 봉사의 길

— 김 채 화

— 국 적 대한민국

— 원국적 중국



나는 2005년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다. 낯선 나라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언어도 문화도 모두 달랐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일상적인 대화조차 쉽지 않아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았고, 문화 차이로 인해 당황스러운 순간도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안산 원곡동에서 보았던 잊을 수 없는 장면 하나가 있었다. 그건 매달 이주민센터 앞에서 한국인들이 피켓을 들고 외국인을 위한 무료진료에 관하여 홍보 및 안내하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저 사람처럼 나와 같은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이주민센터를 찾아갔고, 중국어가 가능하니 이곳에서 통역 봉사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그 순간이 바로 나의 첫 봉사의 시작이었다.

그때 함께 봉사하던 한 한국인 친구는 나와 같은 나이 였는데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한국에 정착하려면 한국어를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배워야 한다며 한국어 공부를 권유했다.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한국어를 제대로 한번 배워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어 공부에 집중하기로 했다. 아침 9시면 안산시 YWCA로 가서 체계적으로 한국어 수업을 들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저녁에는 치킨집에서 일을 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늘 새벽 두시가 다되어 녹초가 된 채로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 매번 쉽지는 않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공부와 일을 반복하는 생활을 1년 동안 이어갔다.

그 덕분에 나는 한국어 보조강사 과정, 중국어 지도사 과정, 한국어 토픽 고급 과정, 컴퓨터 과정까지 마치게 되었고 매일매일 스스로 배움의 자세로 하루하루 꾸준히 준비했다. 그러다보니 기회가 찾아왔고 2008년부터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안산하모니 소식지 중국어 편집장, 중국어 통역위원, 다문화 강사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많은 이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때 나는 중국어 통역 봉사를 하면서 한국어가 서툴러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곤란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그때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통역해 주면서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주위 사람에게 베풀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봉사는 비움과 채움의 선순환이라는 사실이었다.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내어주면 내 마음은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이러한 봉사들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이다. 이후 나는 안산상록경찰서 통역 봉사과 지역 치안 활동에도 자주 참여하며 다양한 봉사를 이어갔다. 국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만 있다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봉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2018년 뜻을 함께하는 회원들과 다문화인연합회를 설립했다. 다문화인연합회는 한국에서 이주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코로나19가 확산되었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는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했고, KF94마스크 천개를 모아 안산시에 전달하는 활동도 진행했었다. 또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다.



안산출입국 이민자네트워크 무료급식소 방문

우리 단체의 주요활동은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다. 이 급식소는 평범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안산 원곡동에서는 중국동포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시기다. 어느 날 안산시단원경찰서 외사계 경찰관이 찾아와 “동포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를 전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시작한 것이 바로 중국국적의 고령동포를 위한 최초의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2023년 원곡동에 마련된 급식소는 매주 토요일 운영하고 있으며 내국인 어르신 포함 중국동포 어르신 약 50여 명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다. 2025년 3월 13일까지 총 143회를 운영하였으며 지금까지 누적 5000인분에 가까운 급식을 제공했다.

내가 돌보고 있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중국동포분들이 많아 정부지원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많고 한중 수교 이후 한국에 와서 반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한국 사회의 한 부분을 함께 만들어 온 분들에게 따뜻한 한끼를 대접함으로써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우리 급식소는 비록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운영하느라 운영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100명이 넘는 중국동포 후원자와 한국인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나는 동포 후원자들에게 늘 이야기한다.

“우리는 한국 사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이 사회를 위해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시작된 작은 나눔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무료급식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2025년 11월 8일에는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직원들과 이민자네트워크 봉사자들이 우리급식소를 방문해 함께 무료급식봉사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고 100만원 상당의 간식꾸러미와 쌀도 후원해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린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을 말렸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분명 누군가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고.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끝까지 가보자! 라고 다짐하며 나는 지금까지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나는 이주민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국제사이버대학교와 안산용신학교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며,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민자네트워크 수박나눔 봉사활동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다문화특구 거리 환경정화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원곡동 다문화거리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유명하다. 다양한 문화와 음식이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지만, 그만큼 거리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거리 청소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다같이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청소하며 더 깨끗한 다문화거리, 다문화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내가 먼저 사랑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이곳을 찾는 다른 사람들도 내가 사는 이곳 원곡동을 좋아하고 찾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올해 3월부터는 안산용신학교와 협력해 <해피다섬 시니어대학>도 시작했다. 중국동포 어르신들이 공부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친구를 만나 즐겁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나는 한국에서 2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와 배려라는 것이다.

나는 한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이제는 그 도움을 사회에 돌려주며 살아가고 싶다. 작은 손길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나는 봉사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작은 다리가 되고 싶다.

국적과 문화는 다를 수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같은 이웃이다.

나는 앞으로도 안산에서 사람을 잇는 동행자로 살아가고 싶다.



이민자네트워크 연말모임



대한민국에서 느낀 감사,
자원봉사로 보답하고 싶어요.

— 김해성
JIN HAIXING

— 국적 중국



대한민국에서 느낀 감사, 자원봉사로 보답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떠올리면 막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선족이긴 했지만 중국에서 살았을 때 환경적인 이유로 한국어를 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소통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그 당시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매우 운이 좋게 한국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언어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 또한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인내심과 가르침이 없었다면 제 딸도 그렇게 빨리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시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해 드리고 싶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아파트 청소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딸의 어린이집에서 한 학부모를 알게 되었고, 그녀를 통해 천안시 다문화센터의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친절한 선생님들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부하며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경복궁을 방문하여 견학 및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소규모 영어 회화 수업이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타국에서 온 세계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한국 생활에 좀 더 잘 적응하고 융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직장 때문에 우리 가족은 안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그 해에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제 아이가 다닐만한 어린이집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운이 좋게 제 아이가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을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 기쁜 것은 안산에서는 외국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어 매달 교육비의 절반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산은 중국인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살면서 저는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한 언니들 몇몇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일도 구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저는 한국어가 계속 배우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언니들과 함께 직장을 다니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건강에 관한 지식도 같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시작한 일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의 삶에는 힘든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저의 시어머니께서 직장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치료 기간 동안 암으로 인한 고통과 약물 부작용으로 시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곳곳하게 견디며 잘 버티셨습니다.



안산출입국 이민자네트워크 자원봉사,
직접 만들어 구운 빵을 아동복지센터에 나눔



독립기념관 방문체험

저는 일하면서 배웠던 많은 건강 지식을 활용하여 시어머니의 간병을 하였고 그 덕분에 시어머니께서는 회복도 빨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는 건강하기 전과 거의 다른 상태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간병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한국의 의료 시설이 정말 첨단화되어 있고 의료진들도 정말 인간적이고 친절하였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우리가족은 걱정 없이 시어머니를 보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가족은 생활이 점점 나아지게 되어 방 한칸짜리 집에서 방 두칸짜리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제 딸의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체중으로 인한 성조숙증, 지방간 등 건강 문제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저는 지극정성으로 딸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힘썼고 1년 후, 아이의 건강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아이의 건강은 모든 부모가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이니 다시 건강해진 딸을 보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안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알게 된 친한 언니를 통해 안산출입국 이민자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되었고,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자원봉사자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 자신이 많은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생각했고 이후 자원봉사자로 몇 년간의 경험을 거치면서 이제는 한국어 실력뿐 아니라 자신감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법률과 규정을 배우고, 각종 행정 절차에서 주의할 점들을 익히는 등 저에게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민자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몇몇 활동들이 저에게 특히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중 하나는 빵 만드는 곳에 방문하여 맛있는 빵을 직접 만들어 아동복지 기관에 전달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공방 같은 곳에서 선생님과 함께 맛있는 빵을 만들고, 분류하고 포장한 뒤 아동복지기관에 전달했던 일이 제게는 의미 있으면서도 굉장히 즐거운 과정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이곳 안산출입국 이민자네트워크에서 만나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뿌듯했고, 비록 제 한국어가 유창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봉사활동들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구나라는 점이 매우 뿌듯했습니다.



독립기념관 딸과 함께

이 경험 덕분에 저는 이민자네트워크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기억나는 활동은 천안 독립기념관 체험 활동입니다. 제가 천안에 1년 넘게 살았지만, 독립기념관을 방문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운이 좋게도 안산출입국 이민자네트워크에서 가족과 함께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는 체험 활동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전문 해설 선생님이 계셔서 좋았고, 맛있는 점심도 제공 되었으며, 재미있는 체험 활동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의미있고 재미있는 활동들이 너무 많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제 삶에는 즐거움도 많았지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사는 동안 우리 가족은 한국의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만약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았다면,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가 아팠을 때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체계적인 아동 보호 제도가 없었다면, 제 아이는 안전 보장도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다양한 복지 혜택 덕분에 우리 같은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더 잘,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온 이후의 매일매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e 19th Together Day

제19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레집



새로운 나라에서 만난 따뜻함,
이제는 베풀고 싶어요

— 이지연

— 국 적 대한민국

— 원국적 베트남



새로운 나라에서 만난 따뜻함, 이제는 베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이지연입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제게 많은 배움과 경험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언어와 문화, 생활 방식이 모두 낯설었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조차 쉽지 않았고 생활정보나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단순히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큰 힘이 되어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게 도와주신 선생님들과 항상 격려해 준 친구들, 그리고 주변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힘들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작은 친절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소한 도움처럼 느껴졌지만 그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는 저에게 큰 용기와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삶은 어렵지만 제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시간들이었으며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입국한 시기는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했던 때였습니다. 한국의 모든 시설들과 프로그램 등이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폐쇄된 환경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주 막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방법을 찾기 어려웠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안산출입국 이민자네트워크 자원봉사,
원곡동 환경정화활동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침 집 근처 다문화 센터에서 제게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의 안부를 물어봐 주었고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재와 학습 자료도 보내 주었습니다.

또한 집에서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부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전화와 학습 자료를 통해 꾸준히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따뜻한 도움은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경험들은 매우 큰 힘이 되었고 언젠가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행정 기관이나 관련 센터를 찾아가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번 행정기관이나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직원분들이 매우 친절하게 설명 해주고 필요한 도움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하나 작성하는 것도 매우 어렵게 느껴졌었지만 그분들의 도움 덕분에 하나 하나씩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저는 시간을 쪼개어 한국어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려고 노력했고 꾸준히 연습했더니 점점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경기도에서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단순히 상을 받았다는 의미를 넘어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것들을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그 이후로 다양한 공부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검정고시, 토픽, 토익,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이 매번 쉽지는 않지만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고 개인적인 성장과 함께 지역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러 봉사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한 봉사활동은 안산시 다문화센터에서 이주민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안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도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냐고 묻곤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었을 때 저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마다 주변의 좋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큰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서 열심히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말 그대로 봉사활동입니다.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들지만 저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뿌듯함은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볼 때 그 순간이야말로 저는 정말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프리랜서 통역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통역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청소년 및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으며 언어 문제로 학교생활이나 일상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학생들에게 통역사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통역사는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이어 주는 다리나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성심성의껏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간혹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고민을 한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워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배경청소년 통역자원봉사

새로운 나라에서 만난 따뜻함,
이제는 베풀고 싶어요

제19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그렇지만 통역사인 내가 베트남어로 편하게 이야기하며 다가가갈 때 그곳의 아이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편하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궁금한 점들을 통역하며 설명해 줄 때 아주 큰 보람을 느낍니다.

때로는 상담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서 통역을 돕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최대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활동들로 하루하루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하루가 저로 인해 작은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바뀔 때 누구보다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도움들을 잊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배움의 중요성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은 조금씩 성장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자신의 길을 곳곳이 걸어가기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실 자원봉사



국경을 넘어 우리 동네를 지키는
세계인의 안전 방범대

— **안산시 자율방범대
원곡지대**
(최용석 지대장)



40년의 역사, 안산시 최초의 자율방법대

원곡동 자율방법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치안 유지와 안전한 상권 조성을 염원하던 원곡동 상인연합회의 자발적인 요청과 참여로 출범한 안산시 최초의 자율방법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동네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밤길을 지켜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밀착형 안전 공동체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혁신:

외국인 대원 영입을 위한 정관 개정 주도

시간이 흐르며 원곡동 일대가 전국 최대 규모의 외국인 밀집 지역(다문화특구)으로 변모함에 따라, 치안 환경 역시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기존 내국인 중심의 방법대 활동만으로는 다국적 주민들의 기초질서 확립과 언어적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이에 원곡지대는 방법대에 외국인 주민을 직접 참여시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규정상 외국인의 방법대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쳐 단원구 연합대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역설하고 설득하여 마침내 '외국인 가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을 이끌어내는 결정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치안 패러다임을 바꾼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조치였습니다.

법무부 정책과의 시너지 및 다국적 안전 네트워크 구축

정관 개정 이후, 관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했습니다. 특히 법무부의 '외국인 봉사활동 비자 가점 제도'와 방법대 활동을 연계하여 외국인 주민들의 참여 동기를 크게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중국, 베트남, 가나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이 핵심 대원으로 합류하여, 내국인 대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실질적인 다국적 치안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원곡동의 밤을 깨우는 순찰

생업을 마친 고단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원곡동 자율 방법대원들은 매일 21시부터 익일 01시까지 원곡동 전역을 도보 및 차량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대원이 조를 이루어 골목골목을 누비며, 범죄 취약 지역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원곡 다문화 파출소와의

유기적 공조 및 기초질서 계도

경찰의 공권력만으로는 당기 힘든 골목 치안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관할 원곡다문화파출소와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밀집 지역 특성상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 투기, 고성방가, 주취 소란 등의 문제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같은 국적의 외국인 대원이 자국어로 한국의 기초질서를 설명하고 설득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치안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순찰 활동 (안산역)

지역사회 행사 참여를 통한 화합과 소통

안산시 및 원곡동에서 주최하는 크고 작은 지역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질서 유지 및 교통 통제 봉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원곡동 자율방법대의 다국적 활동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외국인도 우리 동네를 위해 봉사하는 이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대장의 밀착 동행:

1~2개월의 체계적인 '한국화' 연수

외국인 대원들이 방법대에 입대하면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1~2개월간의 체계적인 연수 기간을 거칩니다. 이 기간 동안 지대장이 직접 외국인 대원들과 함께 거리를 걸으며 한국의 기초질서, 문화적 특성, 그리고 안전 순찰의 기본 수칙을 일대일로 밀착 교육합니다. 단순한 방법 기술이 아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를 가르침으로써 이들을 진정한 지역사회의 리더로 길러내고 있습니다.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달래는 따뜻한 연대와 환대

순찰이라는 공적인 임무 외에도, 타국에서 홀로 생활하며 외로움을 겪는 외국인 대원들을 가족처럼 보듬고 있습니다. 매월 개최되는 월례 회의에서는 그 달에 생일을 맞은 외국인 대원을 위해 내·외국인 대원들이 다 함께 모여 생일 파티를 열어줍니다. 이러한 정서적 교감과 따뜻한 환대는 외국인 대원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안산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 곡 동 다 문 화 특 구 합 동 순 찰 1

K-자율방법 모델의 글로벌 수출:

귀환 후를 대비한 비전 교육

원곡동 자율방법대의 가장 돋보이는 차별점은 대원들의 '미래'까지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대원들이 언젠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를 대비하여, 한국 자율방법대의 성공적인 운영 방식과 그 기반이 되는 구성 근거(법률적 지식)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원봉사를 넘어 "내가 사는 동네는 내가 지킨다"는 숭고한 목표 의식을 심어주는 과정으로, 한국의 우수한 민간 치안 시스템(K-자율방법)을 세계로 수출하는 민간 외교관을 양성하는 것과 다름없는 성과입니다.

100여 개 국가의 주민이 하나 되는

'글로벌 치안 연대' 구축

현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는 1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곡동 자율방법대의 단기적인 목표는 이 100여 개 국가 출신의 주민들이 모두 방법대 활동에 한 번쯤 참여해 보는 것입니다. 출신 국가와 언어는 다르지만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내 손으로 안전하게 지킨다"는 자율방법대의 숭고한 정신을 원곡동 주민 모두가 공유하는 진정한 통합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원곡동 다문화특구 합동순찰 2



방법대 워크숍 (제주도)

안전한 동네에서의 행복한 기억이 본국까지 이어지도록

궁극적인 포부는 원곡동을 거쳐 간 수많은 외국인 대원들이 한국에서의 자율방법대 활동을 인생의 가장 보람차고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훗날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에서 배운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살아가는 현지 동네에서 이와 비슷한 안전 지킴이 활동을 실천하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곡동 자율방법대는 앞으로도 내국인과 외국인이 안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연대하는 '상호문화도시 안산'의 가장 자랑스러운 상징이자, 모범적인 다문화 통합의 이정표로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북 소리로 찾은 자신감,
'중국문화단' 이야기

— 류 수 지

— 국 적 대한민국

— 원국적 중국



낮선 설렘, 마음으로 품은 아이들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 수지 씨는 2018년부터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이주배경 아동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점차 위축되어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그녀는 마음 한구석이 늘 아렸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지씨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재능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중국 전통 북과 악기 연주, 군무를 가르치는 자발적인 ‘자신감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습실 없는 아지트, 함께 만든 기적

처음에는 연습실조차 없었습니다. 무거운 전통 악기를 차에 싣고 다니며 야외를 전전했고, 날씨가 궂은 날엔 지인의 가게가 비는 시간에 겨우 모여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수지씨는 사비를 털어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공간이 생기자 그곳은 아이들과 부모님, 동료들이 모이는 따뜻한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부모님이 바쁜 날엔 수지 씨가 아이들의 끼니를 챙기며 정을 쌓았습니다. 처음 보는 악기에서 나는 소리를 ‘방구 소리’라며 깔깔대던 아이들은, 어느새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가는 연주자로 성장해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세계인의 날 무대까지

잇을 수 없는 첫 무대는 성서의 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무대도 없이 행인들 사이에서 공연해야 한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창피해서 못 하겠다”며 실망했습니다. 그 때 수지 씨는 “시장에서 무대도 없이 공연하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유명한 가수들도 시장에서 공연하고 경력을 쌓아서 나중에 큰 무대에 오를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며 아이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2024 세계인의 날 행사 무대 1



2024 세계인의 날 행사 무대 2

그녀의 진심 어린 격려에 아이들은 용기를 내어 북채를 잡았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시장 상인들과 행인들은 엄지를 치켜세우며 환호했고, 아이들의 얼굴에는 환희가 피어 올랐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요양원과 복지관을 돌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어른신들이 즐겁게 웃어주며 같이 춤추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 생각이 나서 애뒀었고 어른신들이 중국에 가지 않아도 중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자부심과 환영 받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한우 경품 당첨

하늘이 준 선물, 함께 하는 한우 파티
특히 2024년 대구출입국 세계인의 날 행사에서 ‘중국문화단’은 당당히 오프닝 무대를 장식하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행사 마지막 경품 추첨 시간, 작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공연에 참여했던 한 어린 친구가 무려 2등 경품인 ‘한우 세트’에 당첨된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공연단 모두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당첨된 아이와 어머니는 그 귀한 선물을 고생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흔쾌히 내놓았습니다. 공연단 식구들은 그 한우로 다 함께 풍성한 뒷풀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고기가 익어 가는 맛있는 냄새 속에서 아이들은 공연을 준비하며 쌓아온 긴장을 씻어냈고, 서로의 정을 확인하며 특별한 추억을 하나 더 보태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리듬을 넘어, 삶의 울림으로

목소리가 모기만 했던 쌍둥이 자매는 이제 무대 위에서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이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수지 씨는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을 믿어준 부모님들과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공을 돌립니다



낮선 땅에서 시작된 작은 북소리는 이제 아이들의 삶을 깨우는 우렁찬 응원이 되었습니다. 수지 씨가 전한 것은 단순한 악기 연주법이 아니라, “너희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보이지 않는 용기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울림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가슴 속에서 오래도록 찾아들지 않을 것입니다.



한우 파티

공연 및 연습 사진





같은 언어로 길을 열다

— 잠 쉬 딘

KHODJIMUKHAMEDOV
JAMSHIDDIN

— 국 적 우즈베키스탄



비행기가 착륙한다. 여권에 입국 스티커가 붙는다.

집을 찾는다. 사람은 도착했다.

하지만 자신감은 흔들리고 이해와 소속감은 따라오지 못한다. 입국과 진정한 정착 사이의 간극은 수년에 걸친 시간이었다.

17년 전 나는 대구대 법학과 박사 과정에 입학하게 되며 열정과 기대를 갖고 한국에 유학을 왔다. 규칙을 아는 것이 곧 보호막이 된다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부딪히며 겪은 한국의 법과 행정 현실은 전혀 달랐다. 끊임없이 바뀌는 비자 규정,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할 때마다 달라지는 서류 절차, 우리말로 만들어진 안내지, 지도도 없는 미로 같은 시스템.

그 간극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다.
구조적인 문제였다.

기한을 놓치고, 절차상 오류를 범하며, 지금 내가 안전한 땅 위에 있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의 경계 위에 있는지 알 수 없는 누적된 불안이 늘 있었다. 이런 문제로 큰 대가를 치르는 동료들을 목격했고, 나는 더욱 정보를 찾아 헤매며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 힘겹게 얻은 교훈들을 나눌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꾸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법을 모르는 것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어가 완벽하더라도, 대학을 졸업했다라도
규칙을 모르거나 따르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규칙을 어기며 얻는 작은 이익은
오늘은 무언가를 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민자들은 계속 증가했고, 그들은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어떤 지식도 보존되지 않았다. 어떤 경험도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이민자는 영점에서 시작했다. 이것은 세대를 거듭하며 반복되는 구조적 간극이었다.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

'아무도 끊지 않는다면, 이 사이클은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나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었다. 반복되는 문제는 구조적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같은 질문이 내일 또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했다.



2018.5.6 대구-경산우즈베키스탄커뮤니티(영남대)



2019.11.29사회통합프로그램멘토교육(영남대학교)

< 물고기를 주는 것에서 낚시꾼을 길러내는 것까지 >

- 첫 번째 단계 (물고기를 주다)

2018년 나는 친구 딜쇼드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을 위한 두 개의 온라인 커뮤니티 (SalomKoreya, OasisStartup Group)를 공동창설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공식 출처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우즈베키스탄어로 정리하여 필요한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제공하는 것. 기초 법질서, 사회적응 필수 정보, 출입국 규정 및 절차 등. 커뮤니티는 홍보가 아닌 신뢰를 통해 성장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형' 이 되었고, 먼저 그 길을 걷고 이정표를 남긴 사람이 되었다. 첫 모임 인원이 약 30명이었는데 어느새 회원 수가 3천명이 넘는다. 내가 제공한 것은 공식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시스템으로 가는 다리였다. 이미 존재하는 서비스와 그 존재 자체를 몰라 접근하지 못했던 커뮤니티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었다.

- 두 번째 단계 (낚시를 가르치다)

수년간 같은 질문에 반복해서 답하면서, 나는 자신이 증상을 치료하고 있을 뿐 원인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더더욱 제도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프로그램)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이민(출입국)행정 실무 아카데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다문화 무역인 무역 아카데미, 그리고 이민정책연구원과 한국이민재단을 통한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 강사 양성교육, 산업안전 및 범죄예방 교육을 이수했고, 마침내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 강사가 되었다. 그것은 한때 내 자신이 신규 이민자로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했던 바로 그 프로그램의 전문 강사가 된 것이었다. 자연스럽게 나는 공식 시스템과 그 시스템이 미처 닿지 못한 사람들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19년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모범 이민자를 시작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홍보대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우즈베키스탄 대표,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 한국안전보건공단 외국인 지역 안전리더 등 여러 타이틀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



2025.3.20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도서기증 행사

나는 개인의 행동이 모여 집단 전체의 평판을 형성한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했다. 그래서 실무 교육과 함께 기회가 닿는 대로 커뮤니티를 통해 시민 책임과 공동체 상호 책임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 나갔다. 신규 이민자들이 일찍부터 규범을 익히고, 작은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공동체 스스로 교정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애썼다.

- 세 번째 단계 (낚시꾼을 길러내다)

나는 한 사람이 닿을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신규 이민자를 위한 우즈베키스탄어 맞춤형 오리엔테이션 커리큘럼 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우즈베키스탄 커뮤니티 리더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커뮤니티 내부에서 다음 세대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 강사, 법무부 이민자 멘토단 멘토, 한국안전보건공단 외국인 안전리더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수학에서 1+1은 2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활동에서 올바른 사람들이, 올바른 목적을 위해 함께 모이면, 1+1은 11이 될 수 있습니다."



2023.11.14 출입국플로깅 봉사활동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우즈베키스탄어로 상담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건의를 하기보다 커뮤니티 리더들을 결집하여 인구 통계적 필요와 우즈베키스탄어 상담원 추가의 구체적 효과를 담은 공식 제안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직접 제출했다.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필요성은 인정되었다. 그러나 언어 추가는 별도의 국가 예산 배정이 필요하며, 연간 예산 편성 주기에 따라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또 같은 행보로 대구출입국사무소의 '보호외국인 도서 기증 행사'에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동원하여 우즈베키스탄어 책을 전달했다. 나의 모델은 결코 공식 채널과 병렬적인 구조가 아니다. 언제나 공식 채널을 보완하고, 연결하고, 확장하며, 필요할 때는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17년 전, 젊은 법학도 한 명이 꿈과 법적 지식만을 안고 한국에 왔다. 길잡이도, 지도도,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커뮤니티도 없었다. 한국으로 오는 수천 명의 우즈베키스탄인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덜 외롭도록 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예방할 수 있었던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도 피할 수 있었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줄길 바란다. 더 많은 사람이 더 빨리 자리를 잡고, 더 빨리 서비스에 연결되며, 더 단단한 기반 위에서 한국에서의 삶을 쌓아가길 바란다. 나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다.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 내가 필요 없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목표다.

“몸보다 먼저 도착해야 할 것들이 있다. 정보, 이해, 그리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나는 그것이 먼저 도착할 수 있도록,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2019년 대구출입국 모범이민자상



2024.9.24 1345제안서제출
(우즈베키어상담원 추가)



인도네시아 팔루에서 왔어요

— EKA WIRAWATI

— 국 적 인도네시아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팔루에서 온 에께예요.

한국에 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지금은 대전 해수욕장이 유명한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있어요. 2013년에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한국으로 시집을 왔어요. 남편은 충남해양고등학교에서 실습교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팔루의 무함마디아 대학교 보건학부를 졸업했지만 2014년에 결혼을 하면서 급히 한국으로 오는 바람에 내가 하고 싶었던 간호사 일도 해 보지 못하고 저의 꿈을 접었어요. 하지만 10년 동안 저의 꿈 대신 사랑하는 아이들을 네 명이나 낳아서 건강하게 잘 키웠어요. 벌써 큰아들이 5학년이고, 작은아들이 4학년, 셋째딸이 2학년, 막내딸이 일곱 살인데 아직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비록 아이들이 많아서 요리도 많이 해야 하고 빨래도 자주 해야 해서 힘들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보령은 바닷가에 있는 도시여서 마치 제 고향 팔루에 와 있는 것처럼 너무 편안하고 친근해요.



가족사진

제 고향 팔루는 길이 10킬로미터 폭 2킬로미터의 물병 모양의 호수처럼 처럼 생긴 좁은 항구에 상시 큰 배가 떠 있는 어촌마을이에요. 마을 인근에는 물을 맑게 해주고 태풍도 막아주는 울창한 맹그로브 숲이 있어요. 특히 이 맹그로브 숲은 지구의 공기청정기라고 할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깨끗한 공기를 사람들에게 내보내 준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블랙 타이거 새우를 양식한다고 이 맹그로브 숲의 나무들을 너무 많이 베어내는 바람에 2018년에 지진과 쓰나미가 팔루 바닷가 마을을 덮쳤는데 나무가 없으니 이 태풍과 지진을 막지 못하고 대부분의 집과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잠기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본래 제 고향 팔루는 항상 여행객들이 붐비는 아름다운 관광도시였는데, 그 무서운 지진 때문에 세계 여행 금지 도시가 되어 모두들 더 가난해지고 다른 도시로 떠나는 슬픈 도시가 되었어요.



가족사진

그때 저는 한국에 시집을 온 상황이었는데요, 팔루에 있는 부모님과 가족들 걱정하느라고 제대로 잠도 못 잤어요. 지금도 부모님께서도 팔루가 위험하니 너라도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라며 고향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네 아이를 돌보느라고 인도네시아 고향에 자주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주 부모님과 형제들과 영상통화로 옛날이야기를 하면서 고향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네 아이들 때문에 바빠서 한국어 공부도 못했는데요, 벌써 막내가 일곱 살이니까 좀 여유 시간이 생겨서 주중에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주말에는 한서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4단계 공부도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결혼 때문에 포기했던 간호사가 되는 꿈도 다시 이루려고 해요. 그리고 지진과 쓰나미의 공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고향의 부모님도 한국으로 초대해서 이처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관광지들을 다 구경시켜 드리고 싶어요.



가족, 한국음식을 기다리며



가족, 나들이사진

앞으로도 오래오래 사랑하는 남편과 네 아이들과 함께 내 고향 팔루를 닦은 보령의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에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The 19th Together Day

제19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레집



‘박사’라는 꿈을 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NORMATOV
MUKHAMMAD
ROVSHAN UGLI**

국 적 우즈베키스탄



‘박사’라는 꿈을 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무함마드라고 합니다. 저는 1997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삼촌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삼촌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 하시면서 ‘자신에게 열려 있는 기회를 스스로 닫지 말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삼촌한테 말로만 들던 한국, 대학교 입학,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전공 글로벌자유전공학과에서는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듣기, 문어 텍스트 읽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토론’ 등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듣고, 읽고, 쓰고, 말하는 수업인데, 처음에는 제 한국어 실력이 완벽하지 않아서 발표나 토론 수업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수강하는 과목이 많다 보니, 한꺼번에 공부해야 할 분량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업을 마치는 날이 점점 많아지자,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이 지쳐갔습니다. 꼭 받고 싶던 장학금도 결국 못 받게 되자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한국에 처음왔을 때 1



한국에 처음왔을 때 2

또 힘들었던 점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한국 음식은 조금 맵게 느껴졌습니다. 고향에서는 플로브(Plov), 삼사(Samsa), 라그만(Lagman) 같은 음식을 자주 먹었는데 그중 플로브가 가장 그리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먹던 기억이 있어서 더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 문화에도 적응하기 쉽지 않아서 1학년 2학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1학년 겨울방학이 되었을 때, 우즈베키스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왔다는 것ですよ. 그리고 한국어 공부를 포기하면 이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5시간씩 한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단어와 문법을 공부하고, 한국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말하기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제 한국어 실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관광지도 여행도 다니며, 한국 음식도 계속 먹다 보니 점점 입맛에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밥을 먹을 때 김치가 없으면 밥맛이 없을 것 같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박사’라는 꿈을 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순천향대학교 학사졸업식

한편으로 저는 박사 졸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생활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많았지만, 지금은 아이가 생겼다 보니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 양육과 학업 비용 때문에 다소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쌓은 후, 박사 과정을 마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한국에서 신입생 시절을 시작한 그때의 저처럼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혼자가 아니라 지켜주고 싶은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멋진 남편, 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것입니다.



올해태어난 사랑스러운 아들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며 2022년에 순천향대학교를 졸업하고, TOPIK 5급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더 잘 생활하기 위해 한국에 계속 발전시키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 있는 남서울대학교 재무경영학과 석사 과정에 바로 입학했습니다. 석사 과정은 2년 동안 공부했고, 2025년 8월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꿈에 그리던 박사 과정에 도전 중입니다.

여기서 하나 기쁜 소식을 말하고 싶습니다. 작년, 2025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또, 올해 2026년 1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들은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하고 해맑은 미소를 짓는 천사 같은 아이입니다. 한국에서 아빠가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입니다. 아들과 함께 한국에서 오래 살아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박사’라는 꿈을 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제19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처럼 꿈을 위해 한국으로 온 분이 많을 것입니다. 꿈을 위해 노력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주변을 보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처음 꿈을 꾸던 순간을 잊지 않으면 꼭 이룰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여행



남서울대학교 석사 졸업식



한국 유학이 열어 준
나의 새로운 인생

— SAKAUE RIKAKO

— 국 적 일본



“한국으로 유학하겠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이 한 문장을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때의 선택이 훗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이 바로 나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출발점이었다.



어학원에서 만난 세계권 친구들 1



어학원에서 만난 세계권 친구들 2

한국에 온 후 처음 1년 동안은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했다. 어학원 생활은 한국어 학습에 집중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서로의 문화와 생각을 나누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이러한 교류는 나에게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더욱 넓혀 주었다.

고등학교 때 간 한국 여행 중 우연히 BTS를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다. 태어나고 자란 환경 속에서만 살아왔던 나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결국 한국 유학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2021년 2월 7일,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왔다. 낯선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기대와 설렘을 안겨 주었지만 동시에 많은 도전도 함께 가져왔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생활 방식 등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경험들이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RIKAKO씨를 도와주신 학과 선배님



대학교전공동아리에서 함께한봉사활동 1

어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나는 1년 만에 TOPIK 2급에서 최고급인 6급까지 취득하며 한국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한 이후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TOPIK 점수가 곧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나는 한국의 한 대학교 식품과학과에 입학하여 본격적인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전공 수업은 다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수업에서는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토론과 발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다.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웃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생각보다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누군가가 화를 내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단지 말을 건네는 상황이었던 경험도 있었다. 이러한 작은 오해들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 한국의 의사소통 방식과 문화적 맥락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준 사람이 있었다. 바로 학과의 한 한국인 선배였다. 선배는 내가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공부를 도와주었고, 학교 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문화와 경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선배의 졸업식에도 참석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이러한 경험은 나에게 단순한 도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교전공동아리에서 함께한봉사활동 2

또한 나는 스스로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한국인들과 교류할 기회를 만들었다. 단순히 대학 수업만으로는 읽기와 듣기 능력은 향상될 수 있어도 말하기 능력까지는 충분히 기르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학 생활에서 이러한 교류의 중심이 된 것은 동아리 활동과 총유학생회였다.



총유학생회 활동

나는 약 2년 동안 총유학생회 홍보팀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경험을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한국인 학생들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또한 봉사 동아리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였다. 4년 동안 총 26회, 83시간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공동체 속에서 서로 돕는 것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나에게 단순한 유학생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한국에서 만난 인생 친구들 1

한국 생활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나는 스스로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인 특유의 “정의 세계”에 접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나는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되었고 삶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나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다.

한국에서 요리사가 되어 일본과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

나는 음식에는 국경이 없다고 믿는다. 음식은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요리를 통해 두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나는 유학이 끝난 이후에도 한국에 남아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한식 조리기능사와 일식 조리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학원에 다니면서 바리스타1급과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배우며 앞으로 요리사로서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 만난 인생 친구들 2





2026.2.12졸업

내 인생의 두 번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아직 한국 사회에 완전히 정착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5년 동안의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국 유학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변화시킨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나는 지난날의 나 자신을 칭찬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돌이켜보면 지난 5년 간의 유학 생활은 단순히 학업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다. 새로운 문화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스스로 성장 해 온 과정이었다.



바리스타, 제과제빵 실습 과정

한국 문화 체험 모음



밴드 동아리 활동 추억 모음





The 19th Together Day

제19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레집



낮선 땅에서 걸어온 정착과 나눔의 길

— 손 언
SUN YAN

— 국 적 중 국



저는 중국 단둥이라는 지역에서 도시교통국에서 근무하신 아버지와 지역호텔에서 총괄 매니저로 근무하셨던 부모님 밑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요녕성의 성도인 심양에 위치한 동북대학교에서는 금융학을 전공하였고 덕분에 대학 졸업 후 상해에 위치한 한국 무역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한국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중국으로 주재원 근무를 나와 있었고, 이미 중국에서 유학 기간을 포함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중국어도 가능해서 남편과 저 모두, 고향과 먼 타지에서 사랑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어능력시험(TOPIC) 최고등급인 6급을 취득하고, 저는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는 대전의 한 여학원에서 중국어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힘든 적도 있었지만 일은 제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는 중국어를 배우려는 한국인들이 많이 늘었고, 반대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중국인들도 많이 증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학원에서 시작된 중국어 강사 일은 시간이 흐르고 대전시 평생교육진흥원 등 여러 기관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되었고 현재까지 다양한 수준과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오고 있으며 어느새 중국어 강사 경력도 15년 이상 안정적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달려오고, 안정적으로 직업활동과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저는 차츰 제가 한국에 왔었던 처음 저의 모습이 떠오르며, 저와 같이 한국에서 낯선 첫걸음을 딛는 외국 출신의 유학생 및 결혼이민자,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2014년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강사를 모집하였고, 이에 지원하여 '외국인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로 선발된 뒤 전국의 대학교와 기관을 직접 다니며, 이제 막 한국에 와서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문화, 생활 노하우를 전했습니다. 제가 먼저 배우고 경험했던 사례들을 나누며,



법무부이민자멘토단환경정화봉사활동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고는 남편을 따라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지원 속에 지역다문화센터를 다니기 시작했고,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 함께 한국말과 한국문화를 배우고,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와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 생활에 하루 빨리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법무부이민자멘토단마약근절캠페인참여활동

그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8년에는 법무부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으로 위촉받아 2020년까지 활동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양한 국적의 새내기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 이민자멘토교육을 시행하면서 이민자들에게 모범적인 대한민국 정착 모델을 제시하고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을 전국에서 매년 30여명 선발하는데 2020년 1회부터 총 3회 연속으로 멘토로 선정되어 2026년 현재까지 이민자 멘토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부 이민통합과 외국인 이민자를 위한 각종 교육과정과 정책 제안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각종 민원서류 작성안내 및 통역 봉사활동을 10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니 봉사활동 누적 시간은 2025년 기준 1,000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비록 큰 일은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관심과 봉사를 통해 그들에게는 법적·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어렵게 느껴지는 일을 도와주고, 이에 크게 감사해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년 그들보다 제가 훨씬 더 큰 보람을 얻고 있습니다.

저의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은 행복과 감사의 연속입니다.

남편은 오래된 나무처럼 항상 제 옆에서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될 하나뿐인 아들 역시 초등학교 이후 반장과 각종 학급 임원을 매년 해오고, 모범학생 표창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중학교에 올라와서는 중간고사/기말고사 전과목 A, 교과우수상 수상, 카이스트(KAIST) 영재프로그램 발탁 등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며, 담임선생님께서 건강상 이유로 갑자기 퇴직하실 때에는 편지를 써서 쾌유와 감사함을 전달할 줄 아는 속 깊은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로 법무부장관 위촉장 3회 수여, 대전시 평생교육 공로자로 대전광역시장 표창수상,

노인교육관련 공로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표창 수상 등 다수의 표창 경험이 증명하듯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20대 시절의 제가 결혼 후 남편을 따라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며 어느덧 40대의 장년이 된 사이 고향의 부모님들은 정년퇴직 후 이제 칠순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현재 90세가 넘으신 고령의 조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관계로 한국에 자유롭게 오시지 못하고 계시지만, 코로나로 인해 왕래가 자유롭지 못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년 설날 또는 추석, 그리고 결혼 등 가족 행사에 맞춰 온 가족이 고향을 가거나 부모님께서 방문하셔서 가족의 정을 나눠왔습니다. 부모님께는 만나 뵈릴 때마다 건강을 당부드리고, 동시에 성장하는 자식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 스스로와 가족을 돌보고, 제가 하는 다양한 경로의 일을 통해 많은 한국인들에게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전하고 알리는 한중 문화의 교역 역할을 잘 해낼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점점 외국인 수가 늘어나고 다양한 사회모습으로 변모해 나갈 대한민국에서 제가 결혼이민 초기에 잘 정착하고 적응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 기관,

그리고 주위의 여러 수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이민자들을 위해 저의 작지만 꼭 필요한 손길을 내밀며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중국우호자매도시 교류 활동통역



The 19th Together Day

제19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레집



우리는 '글로벌 맘'이다.

— 신 하 영

— 국 적 대한민국

— 원국적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중국어 강사로 근무하던 저는 중국어를 배워 보겠다고 서른이 넘는 나이에 상하이로 온 남편과 인연이 되어 가족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두 아이를 출산하며 쭉 상하이(上海)에서 살던 우리 부부는 2017년 늦둥이로 얻은 셋째의 출산을 앞두고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상하이(上海)에서 국제학교를 다녀서인지 두 아이는 바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학교도 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통하는 중국인 친구는커녕 또래를 찾아보기도 힘든 시골 마을에서 저는 외로움을 달래고자 중국의 지인들과 영상통화도 자주 하고 자녀들과도 종종 중국어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더니 하루는 동네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집에서 중국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중국말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시면서 순간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직장을 잘 다니던 아들이 중국어를 배워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고 비행기 타고 상하이까지 날아갔었는데 왜 중국어를 쓰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마당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면 집 앞을 오가며 담장너머로 힐끗 힐끗 쳐다보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무일 없이 집 앞을 수 차례 지나다니는 눈이 마주치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의미 없이 던지던 안부들이 외국에서 온 배물뭍이 저를 염탐하는 거였던 걸까요?

십년 넘게 중국어 강사로 한국분들과 교류하며 한국어도 미리 배워서 간단한 대화는 문제없었던 저였지만 황당하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 가고 취업할 때는 다른 나라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이 큰 재산이라 우기며 꾸역꾸역 이중언어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교육청 이중언어 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도대회에서까지 상을 받으면서 현수막이 학교에 걸리고

동네 입구에 걸리니 어머니도 더는 아무 말씀 안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나처럼 말이 잘 통하고 또 중계소를 거치지 않고 현지에서 연애하고 시집을 왔지만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는데 처음 보는 남자랑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집을 온 여자들은 얼마나 힘들까? 시골에는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는 분들이 많구나. 이럴수록 나는 더 당당해질거야.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의 학교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나를 알리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학교 도서관 봉사를 나가고 급식 모니터링을 하고, 나중에는 학부모회 회장에 학교운영위원회장까지 맡아 섬겼으며, 당당하게 다문화임을 밝히고 각종 모임과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센터를 방문하는 이중언어 강사로 취직하여 일도 하고 가족센터의 여러 프로그램에서 중국 문화를 알리는 강사로도 활동하였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물론 가족들도 제가 다문화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오히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골의 다문화 인식개선에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골 어르신들이 다문화 며느리들을 받아들이고 예쁘게 바라봐줄까? 다문화 고부갈등을 해소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렇게 고민을 거듭하던 중 순천시에서 읍면의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알게 된 결혼 이주여성들 중 뜻이 같은 친구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처음 하는 공모사업이라 떨리고 긴장되지만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우리를 알리고 우리가 이방인이 아닌 한국 사람의 일원으로 더 당당해지기 위함에 서로 힘을 합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팀명을 무엇이라 지을까 고민하던 중 누군가 장난처럼 던진 한마디 <마미봉사단>, 그래! 바로 그거야, 우리는 세계 각지 여러 나라에서 온 엄마들이잖아? 글로벌한 엄마들, 그렇게

2020년 결혼이주여성 봉사단체 <글로벌맘>이 탄생하였습니다.

1차 서류심사 통과하고 2차 면접에서 인터뷰순서를 기다리는데 알고 보니 타 단체들은 모두 경험이 풍부한



농촌 다문화가족 봉사활동

운영진들이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기획안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는 이주여성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팀이었습니다. 회장으로 총대를 매기로 한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계획과 희망 사항들을 전달하고 돌아와 최종통보를 기다리는데 그 옛날에 대학입시성적을 기다릴 때보다 더 긴장되었다는 사실은 아직도 비밀~그렇게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몽골 6개 나라의 대표들을 이끌고 첫 스타트를 뚫은 우리 <글로벌맘>은 5년동안 낙안, 별량, 해룡, 상사, 승주, 주암, 월등, 서면 등 여러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서당, 경로당 등 15개의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우리들의 문화를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지금쯤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나를 인기가 많은 우리 <글로벌맘>이지만 처음에는 대상자를 모집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을이장이나 노인회장, 부녀회장님께 연락을 드리면 다들 바쁘시다고 마다하고 경로당 프로그램이 이미 많이 있어서 비는 시간이 없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는 우리가 아니겠죠?

바다 건너 저 멀리서 잘 살아보겠다는 신념 하나로 찾아온 이 땅에서 정붙이고 살아온 그 집념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마침 가족들과의 만남조차 힘든 코로나 시기를 겪을 때라 서로 조심스럽긴 하지만 외로운 어르신들의 마음에 <방구석 세계여행> 이라는 타이틀은 그래도 유혹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방문에 저희들은 철저한 방역을 지키면서 정성을 가득 쏟았습니다.

보부상 마냥 다양한 소품과 의상 거기에 식재료까지 보따리보따리 싸들고 가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모국의 문화, 풍속, 의상 등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고향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대접했더니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앉아 계시던 분들이 회기가 거듭할수록 참여도가 높아집니다. 다음 방문일자를 말씀드리면 서로 달력에 표시를 하시면서 다음에는 어디로 보내줄거냐면서 즐거워 하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3년전 서면 문화마을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어떤 어르신은 장가 못간 고령의 아들이 한명 있으니 꼭 우리들마냥 참한? 처자로 소개시켜 주라고 아드님의 사진까지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랑은 다 된거죠? 저희들도 처음에는 긴장되고 서툴러서 실수도 하고 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자신감이 붙어서 지금은 다들 전문가가 되어서 회의 때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건의만 하면 알아서 척척 계획이 나옵니다. 그렇게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까지 다 하면서 진정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다문화 봉사팀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말이면 모여 회의도 하고 소품도 장만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하다 보니 가정에 소홀할 때도 있었습니다.



농촌 다문화가족 봉사활동



농촌 다문화가족 봉사활동

갑자기 자녀가 아프데 일정상 빠질 수 없어서 아픈 아이를 차에 태워놓고 얼른 진행하고 병원으로 달려간 적도 있고, 타지에서 근무하던 남편이 모처럼 왔는데 짐꾼으로 시골까지 운전을 시킨 적도 있고, 모처럼 부모, 형제 만나러 고향 가셔도 새로운 소품들이 눈에 띄면 영상통화 해가면서 체크하고 했습니다. 더욱이 저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에 회기마다 빠짐없이 출석했고 한 회기가 끝날 때마다 각종 영수증에 서류들을 작성하느라 종종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붙들고 있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늘 뭐하러 그 고생을 사서 하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를 알리고 우리를 알리는데 우리 스스로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내년도 우리 <글로벌맘> 들고 열심히 우리를 홍보하러 다닐 겁니다.

순천결혼이주여성봉사단체
<글로벌맘> 오늘도 파이팅!



고통에서 기쁨으로

— 이 준 동

— 국 적 대한민국



나는 암미 다문화센터를 5년째 섬기고 있다.

암미 다문화센터는 먼저 암미 선교회로 1995년에 시작해, 2015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수많은 이주민들을 섬겨왔다. 이번 학기에도 2단계, 3단계를 열어 40여명의 학생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한국어를 배우러 온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들어오지 못한 학생들이 정말 많다. 매 학기 때마다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다. 단계 신청일 오전 9시가 땀하면, 정말 몇 초만에 개설한 반들이 신청 마감되어버린다. 그래서 그 반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반이 필요하다. 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다문화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어반이 있다.

자체 운영 한국어반에는 아주 기초가 필요한 사람부터 한국어를 곧잘하는 사람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수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그중에 최근에 스리랑카 부부가 들어와 한동안 한국어를 배웠다. 남편인 누완씨가 E-7 비자를 얻게 되어 아내(이름: 미라지니)를 데리고 한국에 온 경우이다. 만났을 때, 미라지니씨는 임신한 상태였고,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 보였다.

그럼에도 한국어 공부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한국어교실에 와서 열심히 배웠다. 누완씨는 그래도 한국어를 잘했는데, 미라지니씨는 조금 부족했지만, 빠르게 한국어를 익혔다. 그러던 어느 날, 출산일이 다가왔고,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해서 남자아이를 얻었다.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우리에게 물어왔다. 한국에서 계속 살 거라면, 주변에 한 스리랑카 부부가 아이들 이름을 스리랑카식의 긴 이름이 아닌 한국식 이름 3자로 지어준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권했다. 그러면서 “온유”가 어떠냐고 제안했다.

며칠 뒤에 다시 방문했을 때, 이름을 자기 나라식으로 정했다며 알려준다. 그러면 ‘문지를 말지’라는 생각이 지나갔지만, 어떤 이름을 지었느냐고 물어보았다. “사야스”라는 이름이라고 한다. 이름의 뜻은 영리하고, 강하다는 뜻을 가진 것이라 하였다.



사야스는 정말 스마트하고, 강해보였다. 특별히 어찌나 눈이 크던지... 정말 부리부리한 눈이었다. 좀 보태어 설명하자면, 눈이 얼굴에서 절반은 되는 것 같았다.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외모의 특징을 말할 때, 눈이 작고 죽 찌진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었다. (물론 모든 한국인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태어난 사야스는 퇴원해서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돌아간 집에서 육아전쟁이 시작되었다. 밤에 아기가 잠을 잘 자지 않고 깨어나서 아빠도 엄마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었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미라지니씨가 심한 변비까지 와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며칠 그러고 괜찮겠지 했는데, 변을 못 보는 상태가 심각했던 것 같았다.하혈을 하고, 변비가 너무 심해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 얘기를 듣고 다음날 아침에 방문하여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는데, 바로 움직이지 못 할 만큼 고통스러워했고, 화장실에 들어가 준비한다고 하는데, 화장실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신음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그 상황 가운데에 함께 들어와 있으니 절로 기도가 되었다. 남편 누완씨와도 함께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다.

간신히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왔는데 별 차도가 없다고 한다. 적어도 며칠은 약을 먹으면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틀인가 지났을 때,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른 병원에 갔다고 한다. 거기서도 다른 방법은 없고, 약을 또 처방해 주었다고 한다.

안타까웠다. 그럼에도 계속 차도가 없고 고통이 극치로 가는 중에 또 다른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가 이번에는 내시경으로 딱딱해진 변을 깨뜨리면서 마침내 그 끔찍한 고통에서 놓임받고 살겠다고 한다. 그 소식을 듣고 방문했을 때, 한눈에 편안해진 미라지니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말 감사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최근에 아기 사야스가 100일 되어,
조출한 100일 파티를 차려주었다.



이번에 만났을 때,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부 둘 다 편안해진 모습, 아기도 잘 노는 모습을 보며 감사하며 축하해주었다. 100일 기념으로, 깨끗하고 브랜드 있는 중고 유모차를 하나 구해 주었다. 거기 잘 누워있는 사야스의 모습을 보며, 한국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왔다.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국가가 해줄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그것은 사랑의 수고와 돌봄이다. 이 사랑의 수고와 돌봄으로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길 소망한다.



The 19th Together Day

제19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레집



한국어로 시작된 꿈,
한국에서 교수가 되다

— DELIKOVA
SVETLANA

— 국 적 러시아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동쪽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인 바이칼 호수로 유명한 울란우데라는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라나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고 언어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통역사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통역사가 되기 위해 어떤 외국어를 배워야 할지 고민하던 중 친구의 추천으로 한국 드라마 '꽃보다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들었던 한국어의 발음과 리듬은 제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언어를 꼭 배우고 싶다.”

여러분은 새로운 언어를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끌리는 느낌을 받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한국어는 바로 그런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러시아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한류가 유명한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걱정하시며 영어나 중국어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믿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러시아 부랴트 국립 대학교 한국어과에 입학해 한국어를 공부했고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한국어가 얼마나 재미있고 매력적인 언어인지 알게 되었고 저도 러시아에서 한국어를 널리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제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언어를 더 깊이 배우기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 장학프로그램에 도전했고 러시아 전역에서 단 두 명만 선발되는 프로그램에 합격해 연세대학교 어학당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척 설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며 문화를 이해해 가는 과정은 저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능력시험 6급까지 공부한 뒤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했고 이후 러시아로 돌아가 러시아 남부 도시 아스트라한에 있는 세종학당에서 운영요원 겸 한국어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어학당을 졸업한 후 졸업식에서 찍은 기념 사진



세종학당에서 한국 요리, 공예 체험과
한국어 퀴즈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함께한 모습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일은 저에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로 처음 문장을 말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역시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강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2023년 아스트라한 세종학당이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을 잃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바로 그때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제 꿈이 시작된 곳이었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주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 진로를 고민하던 중 한국에는 러시아에서 의료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많지만 통역을 도와줄 사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돕는 일을 좋아하는 저에게 의료 코디네이터라는 일은 매우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제 나이라면 이미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제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고 서정대학교 의료 코디네이션과에 입학해 7년 만에 다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강사로 일하던 제가 다시 학생이 된다는 것은 처음에는 조금 낯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업과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경기도 외국인 말하기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학과 성적 1위를 기록해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받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요?”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으로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에
참가해 한국어 교육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발표하는 모습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돌봄 봉사 활동을 하는 모습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 취득

하지만 외국인이 아니면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여러 도전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에게 쉽지 않은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에도 도전해 취득했습니다.

또한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여러 도전을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한국어 교육에 대한 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과 경험을 서정대학교 교수님들께서 지켜봐 주셨고 러시아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던 경험을 살려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에 지원해 보라고 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회로 제가 공부하던 서정대학교 의료코디네이션 학과에서 교수로 채용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겨우 1년 이 조금 넘었을 때 교수로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지금도 저에게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던 날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하고 여러 도전에 나서면서 늘 마음이 조금씩고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에 그리던 일을 얻게 된 순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우며 들었던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리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길이 바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구나.” 저는 사람이 진심으로 노력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어로 시작된 저의 작은 꿈은 지금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한국어로 꿈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용기를 전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 아스타라한 세종학당에서 문화 행사를 마친 뒤 학생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서정대학교 교수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다.



The 19th Together Day

제19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레집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다만 멈추지 않을거예요.

— KIM
ANASTASIYA
NIKOLAEVNA

— 국 적 우즈베키스탄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통역 봉사를 하고 있는 아나스타샤라고 합니다.

저의 평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몹시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쁨이자 삶의 빛과 같은 세 아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을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사랑이자 자랑이듯 말이지요. 2002년 드라마 '겨울연가'를 보면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같은 해 아시아 조정 대회에 참가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오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시작이 결혼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트워크 활동
(민화, 푸른공존을 그리다 전시회 작품 참여)

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가족의 친구였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13년이 되어 그때를 돌아보면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울었고, 얼마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외과 의사였고 당신의 직업을 몹시 사랑해서 저에게도 의사가 되기를 권하셨습니다. 또 할머니는 여자는 항상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야 한다고 하셨고 심지어 법학처럼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지식을 나누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사보다는 번역가나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할머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기에 학교에 다닐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네트워크 활동
(플로깅)

하지만 한국에 온 후 7~8년간 아이 셋을 기르는 데 모든 시간을 바친 저는 막상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자, 서툰 한국어 때문에 학교 회의에 참석할 수도, 친구들과 힘들어 할 때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해온 영어 공부를 비롯해 제 모든 의미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아이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지요.

해외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어장벽을 겪지만 저는 생각이나 욕망을 표현하지 못할 때마다 공황 상태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 저에겐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을 유치원과 학교로 데려다주는 길에 저처럼 외국에서 온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고, 저도 할 수 있다는 것어요. 저는 이미 많은 성취를 이루어 본 사람이라고 스스로 되뇌었고 이런 긍정적인 사고는 제가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다만 멈추지 않을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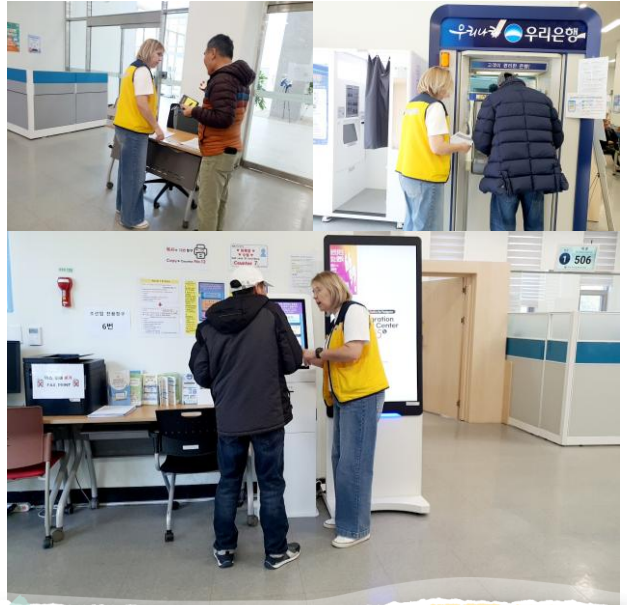
그러던 중 출입국사무소의 자원봉사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되었고, 참여할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내 통역이 충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하는 생각들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고민하는 저를 보며 남편은 한국어뿐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능력, 문화적 다양성 등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막상 봉사활동을 시작하자 통역하는 과정이 너무나 즐겁고, 사람들의 고맙다는 인사에 걱정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은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세요?
한국어를 전공하셨나요?”

입니다.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 한 일이지요.

통역에 있어서 언어를 능숙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절한 몸짓을 이용하는 것과 무엇보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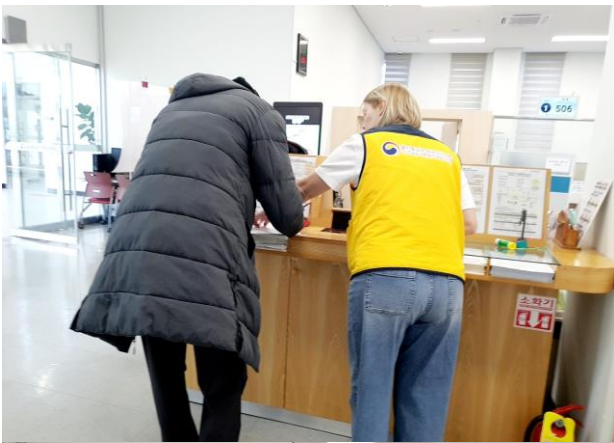


출입국 통역봉사

저는 봉사활동을 통해 ‘소통’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지요. 지금 저는 자원봉사에서 멈추지 않고 전문적인 통역가로 이 분야에서 자리를 잡으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이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며 한국에서 얻게 된 소중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족, 시어머니와 함께 가꾸는 텃밭, 통역을 하면서 느끼는 뿌듯함과 새로운 꿈. 모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 곁에 있는 것들입니다.

한국에 와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좌절, 실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잘 해내고 있다면,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그 결과는 꼭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입국 통역봉사



The 19th Together Day

제19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레집



우쿨렐레 선율에 실어 보낸 희망,
네팔 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다

— GURUNG
DIL BAHADUR

— 국 적 네팔



저는 2014년 5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이라크에서 4년간 요리사로 일했던 제가 낯선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건 우연히 접한 한국 드라마 한 편 때문이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과 사람들의 정겨운 모습은 제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드라마 속 한국의 모습은 제 마음에 새로운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선진 기술을 배우고 열심히 일한다면, 네팔에 있는 가족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선물하고 제 꿈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드라마 대사를 따라 하며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간절함은 마침내 저를 대한민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구룡 독사진

한국에 온 후, 저는 산업기계를 만드는 회사에 취업해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말도 서툴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아 고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회사에서만 묵묵히 10년을 일했습니다. 기계를 만지는 제 손에는 어느덧 두꺼운 굳은살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네팔에 있는 제 가족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흘린 땀방울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고향 네팔에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집과 땅을 샀고, 아이들도 마음껏 공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제 성실함을 인정받아 2024년 6월에는 숙련기능인력(E-7) 비자를 취득하여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생활이 늘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과 낯선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때로 감당하기 버거웠고, 한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떠올릴 만큼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곳은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였습니다.

2024년 4월 센터가 문을 연 뒤,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어김없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사이 회사가 광주에서 장성으로 이사했지만, 센터를 향한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장성에서 광주까지 먼 길을 달려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어와 컴퓨터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배움이 계속될수록 멈춰있던 제 일상도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쿨렐레 수업은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화음을 맞추다 보면 마음속 스트레스가 깨끗이 씻겨 내려갔고,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인연들은 제 한국 생활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쿨렐레 선생님과 반 친구들은 어느덧 저를 '김구룡'이라는 친근한 이름으로 불러줄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시간 속에서 한국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쿨렐레 선율에 실어 보낸 희망,
네팔 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다

특히 작년 광주광역시 세계인의 날 기념 '세계시민 버스커즈' 무대에서 선생님, 반 친구들과 함께 연주하며 인기를 받았을 때의 성취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입니다.



2025년 광주 세계인의 날
세계시민버스커즈 우쿨렐레 공연

센터에서 배우는 것은 취미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더 잘 살고 싶어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5단계까지 모두 마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종합평가를 앞두고는 퇴근해서 밤늦게까지 책을 보았고, 회사에서 쉬는 시간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강의를 찾아봤습니다. 시끄러운 기계 소리가 들리는 공장 한쪽에서 이어폰을 끼고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마침내 종합평가에 합격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한국 사회의 한 사람이 된 것 같았고, 지난 1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 노력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과 같은반 친구들

이제 저는 제가 받은 도움을 네팔 친구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게 공부했던 것도, 제가 잘 알아야 우리 동생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국가별커뮤니티대표단 네팔 리더를 맡아 통역 봉사와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센터의 '원스톱 상담의 날', '정착교육', '한국어 교육' 같은 정보들을 SNS로 꾸준히 알려서, 네팔 친구들이 한국에서 규칙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센터에 방문하는 친구들을 위해 통역하고 도와주는 일은 제게 큰 보람입니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국가별커뮤니티
대표단 단체 사진



네팔커뮤니티 친구들과 사진

우쿨렐레 선율에 실어 보낸 희망,
네팔 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다

제19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지금도 SNS로 한국 생활이 힘들다고
연락하는 네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센터에 꼭 가보라"고
말하며, 우리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쿨렐레와
공부를 통해 희망을 찾았듯,

더 많은 친구가 센터의 도움을 받아 한국 사회에서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네팔 동생들에게 든든한 형이
되고, 한국과 네팔을 이어주는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진



2025 광주 세계인의 날에서 찍은 사진



우쿨렐레 선생님과 네팔, 캄보디아 친구들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미얀마의 봄을 일구는 '희망의 가교'

— PANN
EI HTWE MAUNG

— 국 적 미얀마



■ 가족의 심장에서 광주의 시민으로

저는 미얀마 야메핀의 10명 대가족 사이에서 '가족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란 막내딸입니다. 2019년, 더 넓은 세상을 배우기 위해 정든 가족 곁을 떠나 한국 유학길에 올랐지만, 낯선 언어와 외로움은 큰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는 대신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고, 2020년 언어교육원 6단계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저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열정은 국어교육학과 석사 과정 수료라는 결실로 이어졌고, 이제 저는 제가 배운 지식을 도움이 필요한 동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미얀마의 아픔을 광주의 노래로 알리다

2021년 미얀마에 불어닥친 비극은 저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광주 518 광장에서 열린 '봄 혁명 희생자 추모 전국 공동행진'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5·18 국립묘역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광주의 아픔과 미얀마의 현실이 닮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저의 활동은 광주MBC 특집 다큐멘터리 '마웅과 샨샤의 광주일기'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2021년 방송문화진흥회 지역프로그램대상에 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남도립국악단 기획공연 '미얀마의 봄, 광주를 만나다'에 참여하여 예술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희생자 추모



봄 혁명 희생자 추모 전국 공동행진



마웅과 샨샤의 광주 일기



전남도립국악단 기획공연
“미얀마의 봄, 광주를 만나다”



광주 평화 촛불



마웅과 샨샤의 광주일기 수상



유엔에 와서 미얀마를 위해 도움 요청

■ 국경을 넘어 평화와 인권의 현장으로

저는 미얀마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금남로에서 열린 ‘광주 평화 촛불’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함께 기원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5·18 기념재단을 통해 유엔(UN)에 미얀마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하며 국제적인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2023년 세계인의 날에는 미얀마의 전통 천연 화장품인 '다나카(Tanaka)'를 소개하며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문화 홍보대사 역할도 톡톡히 했습니다.



세계인의 날에 미얀마 문화 홍보

■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헌신

2023년부터는 '미얀마 봄 청년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용동공원과 고저골공원에서 축구대회 및 세파타크로대회를 개최하며 모금 캠페인을 벌였고, 이렇게 모인 성금은 미얀마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고향에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을 때, 저는 광주MBC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며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



자원봉사

도움이 필요한 미얀마 동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강한 공동체 정신과 한국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 미얀마 친구들이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잘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신뢰의 징검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저는 오늘도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7.7 미얀마 강진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도움 요청

■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
그 중심에 서다

2024년부터 저는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미얀마 커뮤니티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센터와 협력하여 미얀마 사람들을 위한 비자 상담, 한국어 수업 지원, 원스톱 상담의 날 통역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센터의 지원 덕분에 우리 미얀마 커뮤니티는 더욱 단단해졌고,



The 19th Together Day

제19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레집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남자,
SNS로 주목받다!

— LITVINOV
ANDRII

— 국 적 우크라이나



안드리아는 우크라이나에서 2010년도에 한국에 와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 5명을 낳아서 한국에서 자녀를 열심히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는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5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며 한국인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5명의 자녀 중 4명은 아들로서 나중에 성인으로 성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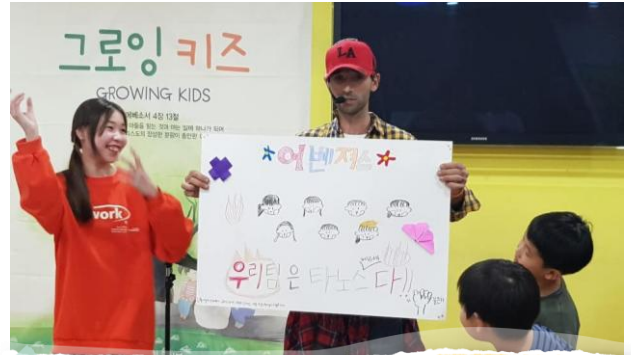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멋진 군인이 되라고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는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안드리아의 5명의 자녀들

안드리아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크게 빛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에 자살중독에 시달리고 노숙자의 생활을 했던 그를 한국인이 길거리에서 발견하고 데리고 나가 살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크게 빛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안드리아 자신은 나이와 국적취득의 이유로 대한민국 군대에 갈 수는 없지만 그의 아이들이라도 군인이 되어 대한민국에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길 희망하는 마음이 큼니다.

2014년도부터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위탁교육기관인 광주새날학교에 교사 및 통역사로 활동하며 현재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고려인 청소년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고려인 마을에서 고려인 청소년 문화센터를 설립해 수백여명 고려인 아이들을 5년 넘게 돌보기도 했습니다.



고려인청소년 문화센터 수업 모습

한국인들은 러시아어를 잘 할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었고 외국인들은 일을 하느라 자원봉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안드리아말고는 할 사람이 없었기에 그는 기꺼이 그 자리를 맡아 봉사를 하였습니다. 이 센터를 방문한 아이들과 대한민국 곳곳을 다니기도 하고 여러 한국 문화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며, 부모님이 일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며 한국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으로 센터 활동을 구상하여 열심히 봉사하였습니다.



봉사활동 모습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남자, SNS로 주목받다!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여러 방송사에서 알게 되자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찰스', '아침마당' 등을 통해서 고려인 아이들의 현실과, 그들의 상황과 문화에 대해서 방송으로 알리고 많은 자원 봉사자들을 모으게 되었으며, 광주 고려인 마을에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람개비 아동센터를 설립하고 고려인을 위한 진료소, 고려인 역사 박물관 등 여러 의미 있는 프로젝트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광주에 정착하는 고려인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습니다.

방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알린 것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고려인 아이들의 현실을 알리고 한국 어른들에게 이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들처럼 함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방송 출연 모습

안드리이는 이러한 활동으로 국가에서 여러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 추천으로 평창 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달리기도 하였고 5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모범가정으로 선정되어 광주 북구청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려FM 러시아어 주파수 라디오 방송을 설립하여 광주미디어센터에서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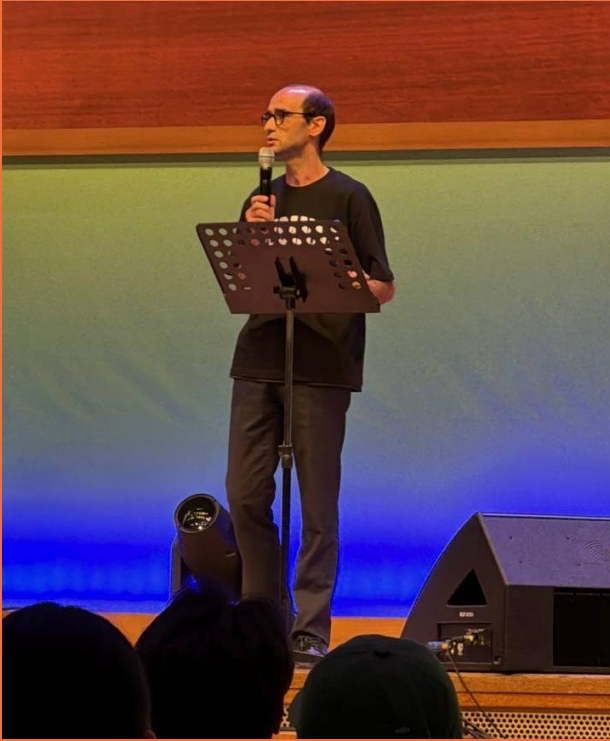


성황봉송 모습과 표창패

2020~2021년에는 광주 KBS '전라도매력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고정패널로 매주 화요일 전라도의 아름다움을 많은 시청자에게 알리는 방송을 하였고, KBC방송국에서 6개월간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서 리포터로 활동하며 전라도 곳곳에 가서 시청자들에게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는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방송 출연의 경험으로 안드리이는 여러 포럼에서 다문화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광주 교육원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다문화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한동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여러 곳에서 열린 이주민 포럼에서 고려인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의를 많이 하러 다녀도 온라인 및 SNS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어렵다는 것을 코로나19 기간을 통하여 깨닫게 되면서 SNS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안드리아 개인 SNS를 통해서 수십만명 외국인 구독자에게 한국 역사와 전라도의 정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활동을 통하여 크게 화제가 되어서 여러 유명인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민가수인 성시경씨가 콘서트에 초대를 하는가하면, 백지영 가수님께서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한석준 아나운서와 함께 외국인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과 어려운점,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러시아어를 기반으로 하는 외국인 공동체에서 한국어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로 유명한 사람은 바로 안드리아이다 라는 프레임과 브랜딩 성공으로 인해 공항이나 출입국관리 사무소나 여러 관광지에 가면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정말 감사하고 한국어 가르쳐 주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료로 진행되는 많은 온라인 프로그램과 영상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정보,

17년동안 한국에 살면서 느꼈던 생생한 정보들과 살아있는 한국어를 외국인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그 결과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드리아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 SNS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문화, 역사를 쉽게 알리는 일, 방송을 통해 그리고 책을 통해 알리는 일, 오치동 주민으로서 5명의 자녀와 한국인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의 안드리아 가족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타국에서 시작된 용기,
마음을 밝히는 나눔으로

— 손 선 화

— 국 적 대한민국

— 원국적 중국



손선화 대표는 중국에서 한국 회사에 근무하던 시절, 지금의 남편을 만나 소중한 인연을 맺고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31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설렘과 기대 속에 시작된 한국 생활은 결코 쉽지않은 않았습니다. 언어는 서툴렀고, 문화는 낯설었으며, 주변에 의지할 친지도 없었습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아기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한국어를 배우고,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기 위해 먼저 다가갔으며, 두 딸을 정성껏 양육하며 가정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광주에서 10여 년 넘게 생활하며 그는 단순히 '정착한 이주민'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당연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겪었던 외로움과 어려움은 그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나처럼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더 이상 혼자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싹튼 것입니다. 그 마음은 곧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1.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움에 주목하다

손선화 대표가 이끄는 다동앓 마을공동체는 지역 안에서 보이지 않게 존재하던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었고, 주민 간 교류 역시 제한적이어서 자연스러운 소통과 이해의 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던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가 적었고, 이는 곧 자신감 저하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다동앓 마을공동체는 "결혼이민자의 재능을 지역 사회와 연결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닌, 스스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민자 재능을 활용한 봉사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마을 의제가 발굴되었습니다.



제7기 다문화가족 참여위원 위촉식

2. 결혼이주여성 x 지역주민, 함께 의제를 찾다

의제는 혼자 정할 수 없다는 신념 아래, 다동앓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 ▲ 주민회의 1회 개최 ▲ 결혼이민자 대상 심층 인터뷰 2건 진행 ▲ 지역주민 설문조사 100부 실시가 그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결과 접근성이 높고 기술 습득이 용이한 네일아트 프로그램이 핵심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일아트는 단순한 미용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자체가 소통이었고,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매개체였습니다.



다동앓 네트워크 간담회

3. 3년의 도전과 실험

이에 따라 다동爰 마을공동체는 3년간 네일아트 봉사 및 일자리 연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결혼이민자 여성 30명이 네일아트 전문 교육을 이수하였고, 그중 5명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교육은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서비스 교육, 위생 교육, 고객 응대 교육까지 포함하여 전문성을 갖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후 복지시설, 경로당, 주민센터, 광주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총 30회 이상의 무료 네일아트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과 여성 주민 100여 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로당에서 진행된 네일아트 봉사활동에서는 어르신들이 “정성스러운 손길이 고맙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라고 말하며 큰 만족을 보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손끝을 매개로 따뜻한 정이 오가는 과정은 결혼이주 여성에게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게 했습니다.



다동爰 회원 순천 나들이

4. 봉사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구축하다

이 사업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봉사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일아트 활동을 기반으로 ▲체험강사 ▲행사 운영 보조 등 총 4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이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에게 단순한 수입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내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 역시 결혼이민자를 ‘도움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다문화 감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활동을 거듭할수록 주민들의 참여율과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송편 만들기

5. “함께 살아가는 이웃” - 공동체가 가져온 지역사회 변화

다동爰의 활동은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지역사회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주민 간 교류 활성화 ▲다문화 이해 증진 ▲상생의 공동체 문화 정착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손선화 대표의 진심 어린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6. 타국에서 시작된 삶, 지역을 밝히는 빛으로

낮선 땅에 첫발을 내디뎠던 2010년 12월 31일의 그날로부터 10여 년. 손선화 대표는 이제 도움을 받는 이주민이 아니라, 도움을 나누는 지역사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공감과 이해는 다른 결혼이민자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주민들에게는 신뢰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작은 네일아트 붓끝에서 시작된 변화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었고, 마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공동체란 무엇인가?’. 그 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웃에게 손을 건네는 작은 실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진심 속에 있습니다.



빛고을 복지관 네일아트 봉사



광주 동구 상인 네일아트 봉사



사랑이 밥 먹여 주나요?

— 박누라사

— 국 적 대한민국

— 원국적 태 국



< 광주 서구가족센터와 함께한 우리 가족의 희망 여정 >

태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오게 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서로 사용하는 언어는 달랐지만,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와서 남편과 함께 생활을 시작했을 때, 같은 공간에서 함께 숨 쉬고 웃으며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저를 미소 짓게 만드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그 사랑의 결실로 아이까지 태어나면서 저의 행복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 행복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언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부모의 말을 듣고 언어를 배워야 할 아이에게 조금씩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말이 트이는 시기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의 말이 쉽게 늘지 않았고, 점점 말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혹시 나 때문은 아닌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노력과 달리 아이의 언어가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아 마음이 힘들었고, 아이 역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며 힘들어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엄마인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다니는 학교 교육복지선생님 안내로

광주서구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저는 센터를 방문하였고 지원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생각보다 빠르게 기회가 찾아왔고, 우리 아이를 도와주실 언어발달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광주서구가족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인 우리 가족의 상황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런 따뜻한 이해 속에서 아이에게 맞는 방법으로 차근차근 지도해 주셨고, 그 덕분에 아이의 언어 표현도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큰 희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광주서구가족센터는 어떤 곳일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서구가족센터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곳이 저와 같은 다문화가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광주서구가족센터의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광주서구가족센터에 자주 들러 프로그램과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고,

점점 광주서구가족센터가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저와 남편에게도 가까운 곳이 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 녹아들어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광주서구가족센터를 이용하면서 저와 같은 여러 다문화가족들을 만나면서, 나의 생각이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서 살아가는 다문화가족에게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남편에게도 제 나라 태국의 문화와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라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할 때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조금씩 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광주서구가족센터를 이용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족참여축제인 “多함께 모여樂” 행사였습니다. 언어발달 선생님의 추천으로 올해 처음 참여하게 되었는데, 우리 가족이 함께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다른 가족들도 만나며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때로는 외롭고 고립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는데, 이 행사를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웃을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도전 나를 넘다” 프로그램 역시 우리 아이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며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큰 기쁨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게만 느껴졌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광주서구가족센터를 통해 아이와 우리 가족에게 다양한 기회가 생기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서구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우리 가족의 행복을 더 크게 키워가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의 앞날에는 더 많은 웃음과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지금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The 19th Together Day

제19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레집



“나눔으로 다시 핀 삶에서
이어진 한누리 꽃담의 꿈!”

— 장 춘 화

— 국 적 대한민국

— 원국적 중국



1. 주요 내용

당사자 장춘화는 2004년 한국에 입국한 이후 초기 정착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광주서구가족센터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삶의 전환점을 마련하였음. 이후 받은 도움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 나섰음.

특히 지역 도서관에서 중국어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460시간이 넘는 봉사 시간을 기록하였고, 이를 통해 이웃과 소통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함. 또한 주변의 어려운 아동을 위해 행복복지센터, 다문화센터, 학교 등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썼으며, 한 아이가 안정적인 가정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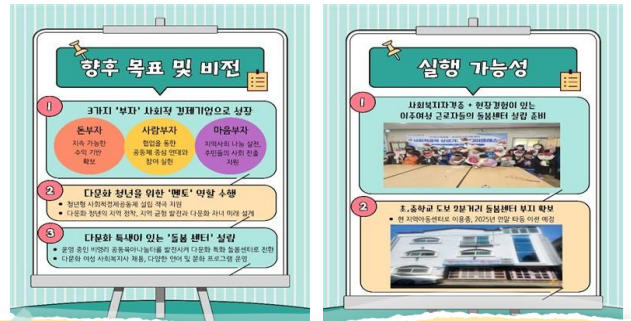
이는 진심 어린 관심과 연대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더불어 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노력도 지속됨. 당사자는 지역 복지 관계자들의 권유로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여 2년간의 과정을 거쳐 2016년 마을기업 ‘한누리꽃담’을 설립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곳은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들이 함께 일하며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음.

현재까지 연간 8명, 누적 26명의 이주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경제적 자립과 자존감 회복을 지원하였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음. 이는 단순한 고용 창출을 넘어 이주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음.

당사자는 개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을 돕고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 온 실천적 나눔의 인물로 꾸준한 봉사와 관심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됨.



계획한 향후 목표와 비전, 목표의 실행 가능성

당사자는 공동체를 위한 실질적 활동을 오랜 기간 성실히 수행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성과를 일궈낸 인물로서 타인에게 귀감이 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지향해야 할 포용성과 다양성을 두루 갖춘 인재임.



한누리꽃담 품다 - 광주서구가족센터 업무협약 체결
마을커뮤니티공간 상시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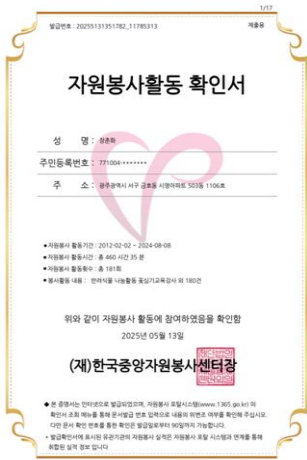


2021년 광주 서구 좋은 마을 만들기 아이디어
마을커뮤니티 공간 다각성 활용 제안 (최우수상)

2.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활동

1)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 활동기간: 2012-02-02~2024-08-08
- 자원봉사 활동시간: 총 460시간 35분
- 자원봉사 활동횟수: 총 181회
- 봉사활동 내용: 반려식물 나눔활동 꽃심기교육강사 외 180건



이주여성 대표 인권 정책 제안 토론회 참여
(다문화가정 2세 취약계층 적용범위 의견 제시)



함께 나누는 공동체 두 번째 이야기:
한누리 꽃담 창업스토리 공유



이주여성 외갓집 방문 수기공모전 꽃다발 후원



다양한 문화 담은 이주민 전래동화



다문화엄마들의 다른 듯 닮은 이야기
권유공공체 2층 연이 다문화전래동화책 출판



다문화 전래동화책 번역 및 출판



2) 사회 참여 활동

연 번	활 동	상 세 내 용
1	마을기업 한누리꽃담 설립	2016년 마을기업 한누리꽃담 설립 - 누적 26명 이주여성 사회 진출 지원 - 연간 프로그램 이용 회기 200회기 이상 - 누적 기부금, 기부물품 총액 1,300여만원
2	광주서구가족센터 운영위원	이주여성 자조모임 기반 취창업교육 및 마을기업 설립 제안
3	서구청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다문화정책위원	마을커뮤니티공간 ‘품다’를 광주서구가족센터와 협약 및 공동사용 제안, 채택되어 현재 수행 중에 있음
4	서구청장과의 소통의 날 참여	광주서구가족센터 이전 제안, 소통의 날 참여 다문화가족 100명에게 각 1만원 무료 식사 쿠폰 지원, 2025년 2월 광주서구가족센터 이전 완료
5	이주여성 취창업 시기 공모전 개최 및 마을신문 연재 (한누리꽃담 자체법인 사업)	이주여성 대상 시기공모를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취창업 홍보 필요성을 서구청장님께 제안, 2025년 서구 이주여성 외갓집방문 시기공모전 개최로 15가정 선정
6	광주 두번째 공동체 이야기, 시장님과의 대화 참여	이주여성기업대표로 참여하여 이주여성의 사회진출과 사회적경제기업 확산 필요성에 대해 제기, 관내 사회적경제기업-광주서구가족센터 간 이주여성 배려채용 협약실 체결 성과
7	다문화 동화책 번역 및 출판	이중언어를 활용한 다문화 동화책 7권 녹음 및 무료배포
8	마을 만들기 공동체 아이디어 발굴	마을 커뮤니티 공간 다각도 활용 제안, 2021년 서구 최우수상 수상
9	인권 정책 제안 토론 참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초기 정착, 중장기 사회 진출 및 2세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정책 반영이 필요함을 제안



고진감래(苦盡甘來),
낮선 땅에서 피어난 꿈

이민주

국적 필리핀, 대한민국

원국적 필리핀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글라디스 그로스페, 지금은 한국 이름 이민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이모의 소개로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2018년,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언어장애가 있는 남편과 두 아이, 그리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3세대 6인 가족의 엄마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깨끗하고 시원한 공기에 무척 감탄했습니다. 마침 형형색색의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렘도 잠시,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음식도, 가족 문화도 모두 달랐습니다. 특히 남편은 청각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으로 저는 제 마음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남편 또한 제 감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대가족 생활도 처음에는 벅찼습니다. 문화 차이로 인해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이 무례하게 보이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외부 활동이 쉽지 않아 집에서 인터넷으로 기초 회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열심히 공부했지만 혼자 하는 공부는 외롭고 지루하게 느껴졌고, 한 달쯤 지나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종일 집안일을 하며 가족들은 밖에서 일하고, 저만 집에 남아 있는 시간이 계속되자 고향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던 시간이 그리웠고, 제 말을 온전히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권유로 지역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한국 사회 안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정서적인 위로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회 내에서 운영하던 영어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필리핀 출신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언어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한국 생활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모임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봉사의 마음으로 유치부 영어 성경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한국어 표현을 알려 주었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교육 활동이었고 훗날 영어 강사가 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영어 강사 수업

하지만 삶은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첫 아이를 갖게 되어 무척 기쁘고 설렘했지만, 동시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한국어가 서툰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남구가족센터의 다문화 방문교육 서비스를 통해 한국인 선생님께 수업을 받으며 양육과 한국 문화를 배웠고, 그 시간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도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어 아이를 돌보며 공부할 수 있었고, 밤늦게까지 노력한 끝에 좋은 성적으로 단계를 마쳤습니다. 2022년 둘째를 출산한 뒤에도 공부를 이어가 5단계까지 수료했고, 마침내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때 제 이름을 ‘이민주’로 바꾸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한 사람으로 새롭게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늘 빠듯했고, 저는 경제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누가 보고, 집안일은 어떻게 하나”라는 시부모님의 걱정 어린 반대가 있었습니다. 남편과도 여러 번 다투었습니다. 서로 답답한 마음을 말로 다 풀지 못한 채, 집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이 그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2025년, 저는 남구가족센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다양한 지원과 함께 상담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상담실 문을 열던 날,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10회기의 가족상담을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되었고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고, 시부모님도 저의 도전을 이해하려 노력해 주셨습니다. 집 안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졌고, 아이들도 더 밝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가족이 다시 숨을 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정이 안정되자 제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는 원래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구가족센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배우는 즐거움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특히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는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다문화 부모학교’ 과정도 수료했습니다. 6개월간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 끝에 2024년 초등과정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큰 용기와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배움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 무렵, 광주남구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 영어 강사 양성과정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또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하였는데 아니냐 다를까, 시부모님은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며 반대하셨습니다. 속상했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센터와 상담 후 토요일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했고,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눈 끝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5개월의 과정을 수료한 후, 저는 광주남구가족센터 소속 영어 강사가 되었고, 현재는 남구청 재정 일자리 사업 영어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아이들 앞에서 제 이름을 소개하던 날의 떨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대상자가 아니라, 제 재능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근하는 저를 향해 “엄마 파이팅!”이라고 외쳐주는 아이들과 묵묵히 응원해 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막막함을 떠올리면 지금의 저는 상상도 못 할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값지고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에는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단맛이 온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말을 제 삶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낯선 땅에서 시작된 제 꿈은 아직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사진



언어로 마음을 잇는 다리

— 티카렌크리스틴

— 국 적 대한민국

— 원국적 필리핀



TOP TEN 서포터즈 티카렌크리스틴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세부 출신 결혼이민자 티카렌 크리스틴입니다. 한국에 온 지 15년이 되었고, 지금은 광주광역시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광주북구가족센터에서 북구 지역 외국인 주민을 위한 통·번역 서포터즈단 ‘TOP TEN 서포터즈’ 양성과 파견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활동인지 잘 몰랐지만 호기심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통역사로서 필요한 전문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은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의 외국인 주민들에게 병원 이용, 행정기관 방문,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저는 개인 통역 활동뿐만 아니라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멘토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첫 통역 활동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다문화가정 언어 발달지원사업 부모교육에 바쁜 엄마를 대신해 외할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센터에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잘 해낼 수 있을지 긴장도 되고 두려움도 컸지만, 용기를 내어 끝까지 통역을 마쳤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된 상속포기 절차 상담 통역, 임신부의 산부인과 진료 동행 통역, 아픈 아이의 수술 관련 의료 통역, 일상생활 상담 통역 등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이민자뿐 아니라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 등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통역 활동은 때로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고민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티카렌크리스틴 사진

그러나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정확히 전달하고 이해를 돕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며,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진심을 담아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모든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같은 외국인 주민으로서 그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보람이 됩니다.

또한 저는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멘토로 활동하며 영어와 필리핀어 통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며 얻은 경험을 초기 입국한 결혼이민자들과 나누는 것은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처음 한국에 온 이주여성들은 “일을 하고 싶다”, “집 밖에 자유롭게 나가고 싶다”, “한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 불안하다”, “음식과 날씨, 분리수거 등 생활이 어렵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와 같은 고민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어 학습의 중요성, 대중교통 이용 방법, 생활 정보와 자격증 안내, 혼자 시간을 보낼 때 도움이 되는 활동 등을 선배이자 언니의 마음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배우자들도 아내와 더 잘 소통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 속에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부부가 소통의 어려움을 느낄 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며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돕고 있습니다.



조기적응 멘토 활동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기까지 큰 용기를 낸 모든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초기 입국한 이주민들은 설렘과 걱정이 함께하는 감정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경험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또 하나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2026년에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자조모임 리더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는 중국, 캄보디아, 대만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결혼이주 여성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이곳에서는 같은 지역사회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모임에서는 야외활동, 생활 정보 나눔, 봉사활동 등을 통해 서로 우정을 쌓고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자조모임 리더

우리는 더 이상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언어로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 이곳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서로 이해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의 고향이자,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The 19th Together Day

제19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레집



낮설음에서 감사함까지: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과 성장 이야기

— 레 티 튀 안
LE THI THUY AN

— 국 적 베트남



낮설음에서 감사함까지: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과 성장 이야기

저는 베트남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은행과 교육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행으로 세 번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 문화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한국에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어를 잘 못해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 생활의 어려움

처음에는 한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서 버스를 탈 때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버스 노선과 정류장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느 정류장에서 내려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어로 길을 물어보는 것도 전혀 할 수 없어서 많이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한국 분들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 주셔서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에 갈 때마다 물건의 값을 물어보고 싶어서 “이건 얼마예요?”라고 말했지만 답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께서 손으로 얼마인지 가리켜 알려 주셔서 이해하고 물건을 쉽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한국 생활에 대한 두려움도 점점 줄어들었고 한국 생활이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한국어 학습과 적응 경험

처음에는 창원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할 때 한국어를 전혀 몰라서 한국어로 인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정말 어려웠지만, 선생님들께서 정성껏 가르쳐 주셔서 한국어를 무섭게 느끼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어학당 5급반 수료식

수업할 때마다 한국말을 실수할까 봐 말을 잘 하지 못했지만 선생님들께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괜찮아, 말해 봐. 선생님이 잘 들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쓰기 숙제를 선생님들께서 항상 꼼꼼하게 보시고 확인해 주신 덕분에 제 한국어 능력이 점점 향상되었습니다.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언어 때문에 힘들었지만 창원대학교 한국어학당 선생님들의 도움 덕분에 저는 한국어 실력을 조금씩 향상시킬 수 있었고 한국 생활에도 점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오랫동안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서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기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이 저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유학 생활의 의미와 성장

저는 나이가 좀 있는 학생으로 유학을 시작하여 여러 학기 장학금을 받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일상생활이 훨씬 편하고 즐거워졌습니다.

현재 저는 창원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며 더 깊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문화 속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가끔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러한 경험은 저를 조금씩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문화체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

지금까지의 이 시간을 돌아보면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저에게 많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일 뿐만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저를 도와주신 창원대학교 한국어 학당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한국 생활에 잘 적응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어학당 수료식

또한 석사 과정에서 만난 교수님들의 친절한 지도와 조언 덕분에 전공 공부에 더욱 집중하며 전공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창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노력하고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도움과 따뜻함을 기억하며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창원대학교는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이며 학습과 연구를 잘 지원해 주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실 한국의 창원대학교에서 공부하기로 한 선택은 저에게 매우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학교에서 좋은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e 19th Together Day

제19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낯선 선택에서 시작된 나의 여정

NGUYEN
THI HONG THAM

국 적 베트남



1. 익숙함을 떠나는 선택 - 쉽지 않았던 결정

한국에 오기 전, 저는 베트남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레스토랑 매니저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충분히 안정된 삶이었고, 그대로 계속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에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익숙함은 편안했지만, 동시에 저를 한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고, 결국 저는 제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익숙한 환경을 떠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두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도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스로를 믿고, 용기를 내어 한국으로 향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2. 한국에서의 시작 - 모든 것이 낯설었던 시간

2019년 9월, 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음악과 드라마, 그리고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언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어려웠고, 처음에는 작은 일 하나에도 긴장해야 했으며 제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가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하얀 종이 위에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조금씩 관계를 넓혀갔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며 한국 생활에 점차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3. 멈춘 시간 속의 성장 - 코로나 시기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일상은 갑자기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여러 가지가 제한되면서 답답함과 불안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언어 공부에 더욱 집중했고,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는 등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외롭기도 했지만,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인내심과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4. 성장과 새로운 인연 - 삶의 전환점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통역 활동과 문화 관련 경험을 통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지나, 저는 2024년 2월 마케팅 전공으로 전북대 석사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JEONBUK NATIONAL UNIVERSITY



그리고 졸업 이후, 제 인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와의 만남은 저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큰 변화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더욱 안정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5년 8월,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주여성으로서 한국에서 또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저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고, 제 삶의 방향을 더욱 분명하게 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이주여성으로서의 삶과 앞으로의 방향

한국에서의 삶은 저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받아야 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저와 같은 외국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으로서 직접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따뜻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앞으로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특히 이중언어 강사로서의 역할과 한국어 교육을 통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한국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두 문화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며,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뛰며 자라는 아이들,
다름을 넘어 하나로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협의회



전북 유일의 다문화 어린이 축구단 - ‘전북 글로벌 유소년 축구단’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인 전주글로벌다문화센터는 다문화가정 아동 및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체능 및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는 정말 단비와 같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관내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축구교실입니다. 동 센터에서 운영하는 ‘전북 글로벌 유소년 축구단’은 전북 유일의 다문화 어린이 축구단으로 전북을 대표하여 전국대회에도 나가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부담이 큰 활동이라 최근에는 프로그램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우리 전주출입국과 사회통합전주협의회는 관내 다문화 아동 대상 예체능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하는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지역 축구단과 협력하여 ‘전북 다문화 어린이 축구교실’을 개최하였습니다.

함께 뛰며 자라는 아이들, 다름을 넘어 하나로 - ‘전북 다문화 어린이 축구교실’

25년 10월 전북현대모터스FC의 대표 외국인 선수인 감보아와 추마시가 직접 코칭하는 축구교실에서, 아이들은 국적을 떠나 축구공으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자가 지닌 다양성의 가치도 깨달을 수 있었죠. 한편 사회통합전주협의회는 같은 날 어린이 축구공 40개를 기부하여 아이들이 훈련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북 다문화 어린이 축구교실

함성 속에서 피어난 아이들의 꿈 - ‘전북현대모터스FC 축구 경기 관람’

같은 해 11월에는 전주월드컵경기장 스타디움 투어와 경기 관람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유소년 축구단의 열화와 같은 환호 속에서 전북FC는 승리를 거머쥐었고, 아이들은 전북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부쩍 키울 수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응원한 지역 대표팀이 승리한 밤에, 축구단 친구들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전북현대모터스FC 축구 경기 관람

작은 만남에서 시작된 인연의 확산 - ‘전북 글로벌 유소년 축구단 후원금 수여식’

새해에는 깜짝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지난 행사에서 축구단 운영의 어려움을 알게 된 사회통합전주협의회가 지역 호텔과 협력하여 후원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일회성 축구교실이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마치 나비효과처럼 그 선한 영향력을 확장한 것이죠.

함께 뛰며 자라는 아이들,
다름을 넘어 하나로

제19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예체능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성취하는 경험을 통해 자심감을 키우고, 협동과 배려하는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죠. 안타까운 것은 다문화가정의 경우 언어적, 경제적 장벽으로 예체능 교육을 접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전북 글로벌 유소년 축구단'과 함께하는 일련의 활동들은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죠.

앞으로도 우리 전주출입국과 사회통합전주협의회는 국민과 외국인이 상생·포용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북 글로벌 유소년 축구단 후원금 수여식 2



전북현대모터스FC 축구 경기 관람



전북 글로벌 유소년 축구단 후원금 수여식 1



전북 다문화 어린이 축구교실



The 19th Together Day

제19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레집



가족의 건강과 화목

— 이 다 인

— 국 적 대한민국

— 원국적 베트남



2012년 남편을 만나 사랑으로 결실을 맺은 뒤 현재는 춘천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며 남편, 그리고 사랑스러운 두 아들과 함께 화목한 대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좁은 전세방에서 생활하며 남편의 일도 마음처럼 잘 풀리지 않아 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가족센터를 찾아 한국어를 배우고 다양한 활동과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한국분들과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며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후 토픽 합격은 물론, 사법통역사 자격을 취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까지 이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민원실에서 봉사를 시작하며 공부도 많이 되었고, 민원실을 찾는 친구들도 더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던 중 결혼 4년 만에 소중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출산하고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잠시 봉사활동을 쉬었지만, 2019년부터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족 사진

연세 많으신 시부모님을 모시며 두 아이를 키우는 생활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꼭 보란 듯이 잘 살아내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살림은 물론 사회활동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의 강점을 살려 강원 이주 여성센터, 춘천경찰서 등 여러 기관에서 통역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강원이주여성 상담소 통역

또한 어린이집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로 2년 동안 활동했고, 초등학교에서는 베트남 여학생의 학습을 돕는 보조 선생님이로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매년 5월이면 통계청에서 외국인 조사 업무를 돕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베트남 친구들에게는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무료 통역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며 늘어가는 교육비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생겼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고, 그 도전 정신으로 2021년 한화생명 보험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번 돈과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저축을 합쳐 마침내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인 집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 살림에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과 가족을 생각하면 다시금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가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멋져요!”라고 말해줄 때면 그간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며 보람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외국인분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꿈임없이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출입국 민원실 봉사



The 19th Together Day

제19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레집



한국생활의 즐거움

— **누라울리아**
NURAULIA

— 국 적 인도네시아



저는 2020년 7월에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남편과는 2015년에 결혼하여 인도네시아에서 5년 동안 살다가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한국어를 빨리 배웠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와 대화가 잘 통하지 않게 될까 봐 그 걱정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공부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밥을 먹습니다” 같은 기본 문장만 익히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 한국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2년 11월쯤 친구의 소개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고 사회 경험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지금까지도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족 사진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사무소를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민원 안내, 통역 등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며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선배 봉사자분들로부터 한국 생활 문화나 아이들 교육 정보 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3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부했고, 1년 뒤 2024년 5단계까지 합격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귀화용 종합평가까지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춤추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춤을 출 때마다 즐겁고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우연한 기회에 가족센터에서 진행한 ‘결혼이민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K-POP 댄스’ 프로그램에 딸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함께 무더운 7월부터 4개월간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대회에서 당당히 ‘대상’이라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딸과 함께 무대 위에서 느꼈던 그 벅찬 보람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를 하며 춘천 YWCA 회원들과 함께 김장 담그기 체험도 했습니다.



댄스 경연 대회

결혼 당시 시어머니께서 계시지 않아 김장을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무척 설레고 기뻐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6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배울 것도 많고 서툴 때도 있지만, 저는 앞으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열정적으로 배워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김장 체험 행사



추석맞이 송편 빚기



The 19th Together Day

제19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레집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 바딜리아
아네로우스

— 국 적 대한민국

— 원국적 필리핀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바딜리아라고 합니다. 2009년 7월 5일 처음 한국에 왔고 온 지 벌써 17년이 다 되어갑니다.

현재 저는 한국인 남편과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사랑스러운 딸아이의 엄마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시아시피 필리핀과 한국은 문화와 언어가 다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직면한 어려움 중 하나가 언어와 문화 차이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한국어를 빨리 배우고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 가족센터를 찾아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갑작스러운 큰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은 제 남편은 왼쪽 눈이 실명되었고, 저는 그 충격으로 첫째 아이를 유산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사고 이후 제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전기 기술자인데 사고 이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 예전처럼 일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1년부터 가정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일을 찾기로 결심했고, 당시 친구의 소개로 오리온 공장에 취직하여 처음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오창에 있는 휴대폰 공장에서도 1년간 일을 다녔지만 소중한 아이가 찾아와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열심히 버텼고, 2012년 8월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예쁜 딸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한편 초등영어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저는 출산 3개월 후부터 유치원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로 일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은 꿈을 품고 청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귀화신청도 했습니다. 당시 딸아이가 많이 어렸기 때문에 귀화 면접을 기다리는 동안 집에서 한국어를 공부했고,



나의 가족, 나의 사랑과 힘이 되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도 3단계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에는 귀화 면접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딸아이가 너무 어렸고, 저 또한 강사 수업용 소품 준비로 바빠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의 공부를 계속하지는 못했습니다.

2014년 6월 20일, 드디어 한국 신분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행복했는데 곧바로 나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2014년 7월에 받은 유방암 진단이었습니다. 저는 유방암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아산 병원에 갔고, 수술하기 전까지 3주 간격으로 4회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담당 종양 전문의와 외과의는 저에게 12번의 항암치료를 더 받아야 하고, 항암치료 후에는 방사선 치료와 10년간 호르몬제 복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 딸은 겨우 두 살이었고, 제가 치료를 받는 동안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면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2015년 7월에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19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이민자네트워크 자원봉사자와 함께

제 가족은 모두 필리핀에 있어서 외로웠고 암과 고독하게 싸우던 시기였기에 이 기회가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023년까지 8년 동안 청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나라 친구들을 만나고, 같은 필리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며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모든 이민자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민자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저는 다시 밝게 웃을 수 있었고 힘든 항암치료도 잘 이겨내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를 그만둔 후에는 화장품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고, 인생에서 또 다른 여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가보지 못했던 다른 곳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에서의 봉사활동은 2023년까지였지만, 저는 기도과 재정적 지원을 받았던 가톨릭 이주사목공동체라는 곳에서 제가 경험했던 아픔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이에게 희망을 주고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웃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지 10년이 넘어 곧 완치될 것 같은 희망이 보이고, 제 남편 역시 예전보다 많이 나아져서 바쁜 저를 대신하여 집안일을 도와주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참여

올해 93세이신 시어머니, 사랑스러운 딸 수현이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많은 경험을 돌아봤을 때,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은 힘들 수 있고 때로는 기복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청주 가톨릭 이주민 사목 교구 필리핀 공동체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고 이겨낸다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담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The 19th Together Day

제19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나의 삶과 도전

RANKOTH GEDARA
PRIYANTHA
WEERASEKARA

국 적 스리랑카



1. 한국과의 첫 인연

안녕하세요. 저는 스리랑카 출신 프리안타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17년이 되었으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충청북도 진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한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이자 소중한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은 단순히 일하는 나라가 아니라, 저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2. 한국을 향한 첫 꿈과 도전

어릴 때부터 저는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8년, 집 근처에 살던 한국인 분들과 친해지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고, 살기 좋고 기회가 많은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EPS)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꾸준한 노력 끝에 시험에 합격하여 2009년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도 한국에 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주변의 기대와 부담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노력과 의지가 결실을 맺어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때의 경험은 지금까지도 제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3.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과 성장

제가 한국에 온 가장 큰 이유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배우고 성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저는 처음 E-9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이후 E-7-4와 E-7-1 체류자격을 거쳐 현재는 F-2-7 체류자격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E-9에서 E-7-1으로 변경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한 끝에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꿈이었던 영주권과 그 다음 단계인 국적 취득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비자 변경이 아니라 저의 삶이 한 단계 성장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매 단계마다 책임감이 더 커졌고,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4. 가족과 함께 만든 길

또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가족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친동생에게 한국에 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과 친동생들

두 동생 모두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에 오게 되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같은 나라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 역시 더욱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5. 낯선 문화 속 작은 익숙함

처음 한국 음식을 접했을 때 적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특히 스리랑카에도 김치와 비슷한 음식이 있어 한국에 온 첫날 김치를 먹었을 때 고향이 떠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는 다르지만 공통점도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등 여러 부분에서 익숙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6. 한국어와의 싸움, 그리고 극복

하지만 한국어 사용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책으로 배운 한국어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한국 드라마, 영화, 뉴스 등을 보며 꾸준히 공부했고,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도 오랫동안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또한 스리랑카팀 대표로서 행사에 참여하며 고향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만난 한 한국인과의 인연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입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을 때, 천안에서 진천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한 분께서 저에게 스리랑카어로 “아유보완(안녕하세요)”이라고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 만남을 계기로 서로의 언어를 배우게 되었고, 몇 년 후 그분은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팀장이자 저의 한국어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그 선생님 덕분에 센터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인연은 제 인생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약 1년 동안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한국 학생들에게 스리랑카어를 가르친 경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2020년에는 진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하며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7. 배움에 대한 도전과 노력

저는 한국어 실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 심화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에도 합격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에는 고려사이버 대학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을 전공했고, 2021년에 졸업하였습니다.

회사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을 하며 바쁜 생활을 이어갔고, 과제가 많은 시기에는 하루에 1~2시간도 잠을 자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졸업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자신감과 성취감을 안겨주었으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8. 도움을 주는 삶으로의 변화

또한 저는 사법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한국어가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밤 근무 이후 이어지는 봉사가 힘들 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기쁨과 보람이 됩니다.

이제는 도움을 받던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어 강사 활동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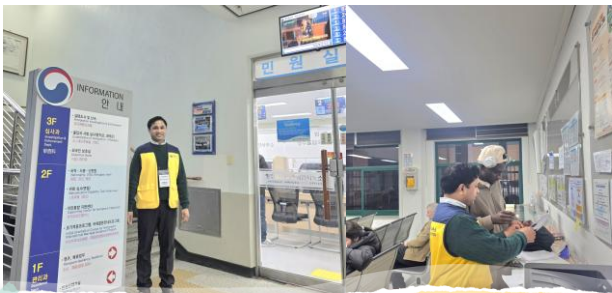
9. 한국 사회에서 느낀 따뜻함

한국 생활을 하며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사장님과 직원이 함께 식사하며 소통하는 문화였습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고, 한국 사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한국 사회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강사 양성과정 수료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자원봉사 활동

10. 한국에서 배운 삶의 가치

저는 한국 사회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 법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성실함과 책임감은 어떤 환경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며, 저는 이를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 앞으로의 다짐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저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따뜻함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도움과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이주민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하며, 다문화 사회의 조화와 발전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제 삶은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은 저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며 나아가겠습니다.



한국어 선생님과 친동생들



나의 버팀목, 우리 가족



학교 행사 참여



대학 졸업식



The 19th Together Day

제19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레집



잔잔한 호수에 던진 돌멩이 하나

— 김현주

— 국적 대한민국

— 원국적 베트남



베트남 하이퐁의 바닷가 마을.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아버지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어머니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난 저는 일찍부터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얹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몸져누우시는 날이면 아직 초등학교생이던 저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 앞에 섰습니다. 작은 손으로 쌀을 씻고, 동생들의 도시락을 싸줍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장녀라는 자리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국어 시간이 가장 좋았고, 수학 문제가 풀릴 때의 그 짜릿함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집안 형편은 공부하고픈 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정형편 때문에 공부를 내려놓아야 했으며 나중에라도 반드시라는 말을 곱씹으며 배움에 대한 갈증을 마음 깊은 곳에 눌러 담아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한국으로 왔고 경기도 안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공기, 낯선 음식, 낯선 사람들,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살아야 하기에 입국한 지 한 달도 안되어 세종 검정고시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한국말도 서툴고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기도 쉽지 않은데 공부는 무슨 공부냐고. 주변에서는 의아해 했습니다.

그날 학원 문을 열고 들어서던 순간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교실에는 열 살 어린 학생도, 예순이 넘는 어르신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연필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던져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돌멩이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파문이 퍼집니다. 넓게, 또 넓게. 그 파문이 어디까지 닿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던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오래 눌러두었던 공부의 꿈을 호수에 던졌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저는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통역·상담 활동가로 일했습니다.



상담·통역 활동

말도 안 통하는 땅에서 임금을 떼이고도 항의조차 못 하는 근로자들, 출입국 문제로 불안한 날들을 보내는 결혼이주 여성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4,000건이 넘는 상담과 통역.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직장 내 임금 문제, 언어 장벽으로 인한 갈등, 다문화 가정의 깊고 복잡한 어려움들, 저는 그 모든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10년의 시간 동안 베트남 공동체 자조모임도 함께 이끌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이주 근로자와 결혼이주 여성 약 400명이 서로의 손을 잡는 자리를 만들고, 근로기준법과 안전교육을 안내하며 자신의 인권과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줍니다. 상담 창구에서는 억울한 사연을 들었고, 공동체 안에서는 그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2019년 한마음 공동체 설립

그리고 2024년,
저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공동체 지원 담당자로서, 이제는 베트남 공동체를 넘어 16개 나라 외국인 주민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명절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마음만큼은 모두 같았습니다.

저는 각 나라 공동체가 저마다의 문화와 전통을 당당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함께 준비했습니다. 설날과 추석이면 한국의 명절 문화를 함께 나누고, 각 나라의 고유한 기념일이면 그 나라 공동체가 주인공이 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음식을 나누며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이웃들이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공동체 행사 관련 회의

매해 열리는 김포세계인큰잔치에는 16개 나라 공동체가 저마다의 색깔로 부스를 꾸릴 수 있도록 조율하고 이끌었습니다. 행사 통역을 맡아 수천 명이 함께하는 자리가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습니다. 다름이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해마다 그 잔치 마당에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문화 행사만이 아니었습니다. 각 공동체의 자원봉사 활동도 함께 조직하고 이끌었습니다. 지역사회 환경 정화 활동,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까지



세계인의 날 행사

16개 나라 공동체 회원들이 단순히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김포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당당한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자원봉사 현장에서 서로 다른 나라 말로 땀을 닦으며 웃는 그 모습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습니다.

베트남 현지의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학용품, 아픈 이에게는 수술비를 보냈습니다.

연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공동체가 함께 모은 마음이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학용품, 식사 지원



베트남 음식 독거노인 나눔

2024년, 제 손에는 토픽 6급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건강가정사,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증도 있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검정고시로 다시 시작했던 그 첫날부터 이어진, 포기하지 않은 시간들의 결실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16개 나라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억울함을 대신 말해주고, 누군가의 외로움 옆에 조용히 앉아주는 일. 각 나라의 문화가 이 땅에서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는 일. 그 일이 저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고려사이버 졸업식

오래전 학원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마음속으로 던졌던 돌멩이 하나. 그 파문은 지금도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10년을 넘게 일하면서, 그리고 김포시와 함께 지역사회의 다문화 현장을 발로 뛰면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곁에 있어줄 때 비로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제도를 몰라도, 단 한 사람이 옆에서 함께 고민해줄 때 그 막막함은 길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낯선 땅에서 오늘도 하루를 버티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 곁에, 제도의 문턱 앞에서 주저앉은 이웃들 곁에, 김포시와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함께 만들어진 그 따뜻한 울타리를 더욱 넓고 단단하게 이어가는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다.

오래전 학원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마음속으로 던졌던 돌멩이 하나. 그 파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포라는 호수 위에서, 저는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또 하나의 파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환경정화 캠페인



다문화 체험 강의



The 19th Together Day

제19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레집



제19회 세계인의 날

The 19th Together Day



법무부